



저작자표시-변경금지 2.0 대한민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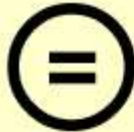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논문개요

본 연구는 사설시조 교육이 변동하는 학계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 채, 고정화된 지식만을 전달하고 있는 데 문제의식을 느끼고, 학교 현장에 있는 교사들이 사설시조를 교육함에 있어서 그 문제점을 판단하고 이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함을 연구의 목적으로 삼았다.

II장에서는 사설시조의 교육 양상과 문제점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1학년과 12학년에 심화과목에서 배우는 18종 문학 교과서를 그 대상으로 하였다. 교과서는 교사와 학생을 연계해주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고, 목표나 내용의 짜임새에서 그것들의 가장 구체화된 모습이기 때문에, 교과서를 분석함으로써 교육 현장에서 행해지고 있는 사설시조 교육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보았다.

II장에서는 교과서의 수록 현황, 단위 설정, 텍스트 양상, 목표-학습 활동 수록 양상, 사설시조 관련 쟁점의 반영 실태 등을 살펴 보았다. 사설시조 관련 쟁점의 반영 실태 양상을 살펴 본 결과, 교과서에서 학계의 쟁점들을 다 수용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오류도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작품 선정의 균형성’이 문제가 됨을 알 수 있었다. 즉 무명씨의 작품들을 주로 수록하는 점, 탈중세적 주제 의식을 다룬 작품들을 수록한 점이 ‘작품 선정의 균형성’ 측면에서 문제가 됨을 지적하였다.

III장에서는 앞에서 제시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양한 텍스트를 활용한 사설시조 교육의 대안을 마련하였다. 먼저 사설시조 작자층 관련 제안에서는 ‘작자층의 균형성’을 염두해 두고, 사대부 계층과 중인 계층의 작품을 선별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이를 활용한 학습 자료를 고안하였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은 맹목적으로 서민적 장르라 여겼던 사설시조 작품에도 다양한 작자층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학습할 수 있다.

사설시조 주제 관련 제안에서는 먼저 교과서에 수록된 무명씨 작품들을 분석하고, 교과서에서 제시되고 있지 않은 몇 주제에 대한 작품을 선별하여 제시하였다. 이 장에서 제시한 학습 자료는 교과서 안의 작품과 교과서 밖의 작품을 연계하여 다양한 주제 의식을 학습하기 위한 학습 목표로 제시하였다. 학습자들은 이를 통해 사설시조의 다양한 주제 의식을 수용할 수 있고, 스스로 평시조와의 차별화된 사설시조의 미의식을 찾을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교육의 일선에 있는 교사들은 사설시조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교수 자료를 제시하는 데 활용 또는 참고할 수 있다. 학교에서 행해지고 있는 사설시조 교육의 오류 및 문제점들이 개선되기를 기대해 본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 목적	1
2 연구사 검토 및 연구 방법	2
II. 사설시조의 교육 양상과 문제점	7
1. 7차 『문학』 교과서 수록 현황	7
2. 단원설정과 문제점	12
3. 텍스트 양상과 문제점	15
4. 목표 학습 활동 수록 양상과 문제점	17
1) 단원 목표-학습 활동과의 관련성	19
2) 학습 활동 문제 유형	24
5. 사설시조 관련 쟁점의 반영 양상과 문제점	28
1) 사설시조 개념 및 연원에 관한 문제	28
2) 사설시조 작자층에 관한 문제	35
3) 사설시조 내용에 관한 문제	40
III. 다양한 텍스트를 활용한 사설시조 교육의 대안	44
1. 사설시조 작자층 관련 제안	45
1) 교과서 밖 사대부 작자층의 사설시조 텍스트	48
가. 사대부적 정서 표출의 사설시조	48
나. 서민적 정서 및 생활상 표출의 사설시조	52
2) 교과서 밖 중인 작자층의 사설시조 텍스트	55
가. 사대부적 정서 표출의 사설시조	55
나. 서민적 정서 및 생활상 표출의 사설시조	58

3) 유명씨 작자층의 텍스트 활용의 실제	63
2. 사실시조 주제 관련 제안	69
1) 교과서 안 무명씨 사실시조 텍스트	69
2) 교과서 밖 무명씨 사실시조 텍스트	77
3) 무명씨 텍스트 활용의 실제	83
 IV. 결론	 90

참고문헌

ABSTRACT

I. 서론

1. 연구 목적

‘時調’는 고려 말엽부터 현재까지 창작·향유되고 있는 가장 오랜 생명력을 지닌 갈래이다. 시조가 이렇게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이유는 우리 민족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기에 적절한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 중 사설시조¹⁾는 창작·향유 계층이 가장 폭넓고, 다양한 주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사설시조는 조선 후기 김천택의 『청구영언』, 김수장의 『해동가요』, 박효관·안민영의 『가곡원류』 등 가집들을 통해 전승되어 왔으며, 480여수 정도가 남아있다. 그러나 전해지는 작품 중에는 평시조와 다르게 작자 미상의 작품들이 많다. 이로 인해 사설시조는 여러 논란들이 있었는데 이를 규명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 성과들로 인해, 기존의 통설로 여겨졌던 이론들이 바뀌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런데 학교 교육은 변동하는 학계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 채, 고정화된 지식만을 전달하고 있어 문제가 된다. 즉, 교육과정이 계속 변화됨과 동시에 교과서를 새롭게 구성하는 절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설시조의 교육 내용은 변화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것은 학교 교육이 이미 오래전에 합의된 선행 연구 결과를 그대로 답습하고만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이에 따라 현재 사설시조 교육에는 여러 가지 오류들이 있다.

이 중 사설시조를 ‘서민 문학’만으로 여기는 것은 대표적인 오류이다. 이와 같은 논의는 이미 여러 論者들에 의해 수정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학습자들은 여전히 ‘사설시조를 서민들의 문학’으로 여기고 있다. 이

1) ‘사설시조’의 명칭은 이 외에도 ‘만황청(류)’, ‘장시조, 장형시조’ 등의 명칭이 사용되고 있으나, 학교에서는 ‘사설시조’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바, 본고에서는 ‘사설시조’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다.

것의 원인은 교과서 텍스트가 주로 ‘서민적 정서’를 학습하기 위한 작품들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물론 교과서에 실린 작품들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 뛰어난 작품성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된 작품들이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편향성’이다. 학습자들은 학교 교육에서 다룬 작품 위주로 사설시조를 학습하기 때문에 ‘서민적 정서’를 주로 다룬 교과서 작품들만으로는 잘못된 선입견이 생길 수 있다. 즉 학습자들은 학교 교육을 통해 사설시조의 전체적 면모를 학습할 수 없으며, 이것은 텍스트를 통해 비판적, 창의적인 사고를 키워가는 것이 아니라 사설시조에 대한 선입견이 고정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는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교사들도 역시 교과서를 중심으로 수업을 준비하기 때문에 스스로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다. 더구나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교사가 사설시조 교육의 문제점을 스스로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찾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학생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교사들에게 사설시조를 교육함에 있어서 그 문제점을 판단하고 이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함을 연구의 목적으로 삼고자 한다.

2. 연구사 검토 및 연구 방법

사설시조에 대한 연구는 크게 문학적 접근과 교육적 접근으로 구분할 수 있다. 문학적 접근은 1960년대 이후에 본격적으로 연구되었는데, 현재까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한 문제가 많다.²⁾ 본고에서는 사설시조의 교육 방안을 찾는 목적이 있는 만큼, 교육적인 연구에 중점을 두었다.

2) 발생, 명칭, 작가, 주제, 미의식에 대한 문제 등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시조 교육 연구의 초창기에는 평시조를 중심으로 한 고시조의 지도 방안 연구나 시조 교육에 대해 포괄적으로 접근한 연구들이 많았다.³⁾ 이 중 고시조의 교육 방안 안에서 사설시조를 부분적으로 언급한 것이 있었는데, 다음의 두 편 정도를 들 수 있다.

심혜숙⁴⁾은 제 4차 교육과정기 고등학교 국어 I 교과서를 분석을 통해, 옛시조와 사설시조가 거의 수록되지 않았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사설시조가 당대의 사회와 생활상이 비판을 통해 잘 나타나 있고, 개성적인 표현이 많으므로 많이 수록하여 다양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박철순⁵⁾은 시조 문학의 수업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한 개선안을 모색하기 위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설문 조사를 통해 학생들이 사설시조에 대한 호응이 시조 문학 전반에 대한 반응과 마찬가지로 신통하지 못하였지만, 과격적·형식미를 지니고 다양한 삶을 진솔하고 현실감 있게 표현한다는 점에서 사설시조를 친숙하게 느끼고 있다는 결과를 얻고 있다.

이 두 논문은 연구 대상을 ‘시조’로 두고 있기 때문에, 사설시조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논의는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다.

이후에 범위를 좁혀 사설시조 교육에 대한 보다 심층적으로 접근한 논문들은 있었는데, 먼저 이우정⁶⁾은 사설시조에서 무엇을 가르쳐야 할 것인가에

3) 박노근, 「평시조의 형식과 율격의 지도 방안 연구」,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3.

이대구, 「고시조의 효율적인 지도방안 연구-국어 II ‘고전문학’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7.

장웅범, 「고시조의 배경사상 교육방법 연구-제6차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8.

4) 심혜숙, 「고시조 학습 지도의 문학 교육론적 접근-고등학교 국어 I 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8.

5) 박철순, 「시조 교육의 위상 정립과 효율적 학습 지도 방안 모색-고등학교 시조 수업 방법 개선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6.

6) 이우정, 「사설시조의 문학적 특성과 그 지도 방안」,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

대한 방법적인 측면으로 사설시조의 문학적 특성을 형태와 내용적 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효율적인 교수-학습 모형을 구안하고자 하였다. 그는 학습자의 창의적 사고력을 함양시키기 위한 학습자 중심의 학습 지도 방법이 요청된다고 하며, 교사 중심의 일방적인 작품 분석이나 훈고적 해석을 지양하고, 학습자 중심의 작품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발표할 수 있도록 권장해주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도방안으로 R.Glaser의 수업 과정 일반 모형을 근간으로 한, ‘목표 단계 → 진단 단계 → 지도 단계 → 평가 단계 → 내면화 단계’의 교수-학습 모형을 구안하였다.

임영도⁷⁾는 사설시조가 민중과 가장 가까웠던 시가로 높은 문화적 가치와 효용을 가지며 교육적 의의 면에서도 여타의 다른 시가보다 높이 평가될 수 있다고 하여 사설시조의 교육적 의의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재영⁸⁾은 6차 교육과정기에 있던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를 중심으로 사설시조를 분석하고 지도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재영의 논문에서는 사설시조의 내용적 특성을 구체적인 현실 생활에 대한 표현, 애정의 적극적 표현, 부조리한 사회 현실에 대한 비판, 고달픈 세상살이를 웃음으로 극복하려는 의지라고 보았으며, 이러한 내용에 풍자와 해학이 잘 표현되었다고 보았다.

조성원⁹⁾은 사설시조가 문학 양식이라는 사실을 염두해 두고, ‘문화 원리’에 의거한 문학교육의 한 경로를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수 학습 모형을 제시하였다. 특히 이 논문에서는 7차 교육과정에서 도입된 수준별 교수-학습방법으로 지도 방안을 제시했으며, 교사와 학생의 대화하기 기법을 통해 학습을 유도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이경희¹⁰⁾는 사설시조 세 작품 <나모도 바히돌도 업슨 뵈혜>, <두터비 파

7) 임영도, 「사설시조의 교육적 의의」,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

8) 이재영, 「사설시조 지도 방안-고등학교 문학 교과서를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9) 조성원, 「사설시조의 수준별 교수-학습 모형 연구; 대화하기 기법을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10) 이경희, 「ICT를 활용한 사설시조의 교수-학습 방법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리를 물고>, <창 내고자 창을 내고자>를 중심으로 ICT를 활용한 사설시조의 학습자 중심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는 ICT를 활용한 결과, 문제 해결력과 종합적 사고력을 함양시킬 수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

조숙희¹¹⁾는 사설시조에 나타난 문체적 특징을 살피고, 현대 사설시조가 옛 사설시조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3단 구성을 이루고 있으면서도 그 중에 주로 중장의 확대가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학습자들의 능동적인 수용과 주체적인 창조적 변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는데, 대화의 원리¹²⁾를 이용하여 교수-학습 모형을 설계하였다.

이상의 논문들을 살펴보면, 사설시조의 특징을 살피고, 교수-학습 방법을 고안한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즉, 어떤 방법으로 수업을 하면 좀 더 효과적인 수업이 될까에 고민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주입식 교육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학습자가 학습의 주체가 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흔적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학계의 연구 동향과 현재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설시조 교육의 차이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한 논의는 없었다. 물론 교육대학원 논문 중에서도 교과서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한 것은 있었지만, 학계 연구 동향을 바탕으로 '내용적 측면'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오류를 수정하는 노력은 부족했다고 여겨진다.

사설시조의 개념, 작자층, 미의식, 주제 등 학계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내용이 학교 교육에 수용되지 못한 것은 사설시조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라 할 수 있다. 학교에서 학계의 연구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학생들에게 전형화된 이론만을 주입시킨다면, 이것이야말로 학생들의 능동적인 참

석사 학위 논문, 2004.

11) 조숙희, 「사설시조의 교육 방안연구-현대적수용과 창조적 변용을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6.

12) 여기서 말하는 대화의 원리란, 교사와 학습자, 학습자와 학습자, 작품과 학습자, 작품의 작자와 학습자간의 소통의 원리에 기반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여과 창조적 능력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사설시조를 ‘어떻게’ 가르칠지에 대한 것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지만, 그 전에 ‘무엇을’ 가르칠지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무엇을’ 가르칠지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 가르치고 있는 것에 대해 비판적 안목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현행 교육의 사설시조 내용적 측면’을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 대안점을 찾아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II장에서는 18종 『문학』 교과서의 사설시조 교육 양상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교과서는 목표나 내용의 짜임새에 있어서 가장 구체화되어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사설시조의 교육 현황을 가장 객관적으로 살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먼저 교육 양상을 살펴 보기 위해 수록 현황, 단위 설정, 텍스트 양상, 목표-학습 활동 수록 양상, 사설시조 관련 쟁점의 반영 양상으로 나누어 살펴 보도록 하겠다. 이를 통해 사설시조 교육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여러 오류들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III장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해 볼 것이다. 이를 위해서 교과서 밖 텍스트를 활용하고자 한다. 먼저 유명씨의 작품을 통해 ‘작자의 균형성’을, 무명씨의 작품을 통해 ‘주제의 균형성’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활용한 교수 자료를 각각 구성하여 하나의 예시 자료로써 제시해 보도록 하겠다.

Ⅱ. 사설시조의 교육 양상과 문제점

이 장에서는 사설시조의 교육 양상과 문제점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18종 문학 교과서를 그 대상으로 하였다. 교과서의 수록 현황, 단원 설정, 텍스트 양상, 목표-학습 활동 수록 양상, 사설시조 관련 쟁점의 반영 실태 등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문제점들을 분석해 봄으로써, 현재 사설시조의 교육이 내용면에서 충실한지 살펴 보도록 하겠다.

1. 7차 『문학』 교과서 수록 현황

학교 교육에 있어서 ‘교과서’는 교사와 학생을 연계해주는 중요한 매개체가 된다. 또한 교과서란 교육을 계획하는 입장에서 볼 때, 목표나 내용의 짜임새에서 그것들의 가장 구체화된 모습이며, 방법의 짜임에서도 그 기초적인 것이 드러나 있는 것¹³⁾이기 때문에 교과서를 분석함으로써 교육 현장에서 행해지고 있는 사설시조 교육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본다. 더구나 7차 교육과정기의 『문학』 과목은 심화 과목으로써, 문학에 대해 좀 더 흥미가 있고 관심이 있는 학습자가 선택하는 과목이다. 뿐만 아니라 학습자는 대학 진학 후 문학 관련 학과를 가지 않는 이상 마지막으로 문학을 ‘학습’하기 위한 기회이기도 하다. 따라서 『문학』 교과서는 내용면에서 깊이가 있으면서도 다양한 측면의 문학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7차 교육과정에 채택되고 있는 총 18종의 『문학』 교과서를 분석함으로써, 사설시조의 교육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문학 교과서는 교육인적자원부의 검인정을 거친 18종이 교재로 사용되고 있다. 교과서 집필자들은 교육과정을 근거로 해서 교과서를 집필하게 되는데, 교육과정은 그 본질적 속성상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추상적이어서

13) 이상태, 『국어교육의 기본 개념』, 한신문화사, 1981, 138쪽.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으므로 그대로 구체화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¹⁴⁾ 실제로 7차 문학 교육과정에는 문학 교과서에 수록할 작품에 대한 선정 기준이나 지침을 따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4. 교수-학습 방법’의 ‘마’ 항에 “작품은 고정된 전범이 아니라 학습자의 다양한 문학 활동을 위해 변용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접근한다”는 내용과 ‘자’항에 “학습자의 심리적, 문화적 요구에 부합되는 관련 텍스트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라는 내용이 작품 선정과 관련된 부분이다.

한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밝힌 ‘2종 교과서 집필 유의점’에 내용의 선정 기준이 명시되어 있다. ‘2종 교과서 집필 유의점’ 중 <문학> 과목의 내용은 크게 ‘내용의 선정과 조직’, ‘단원의 구성 체제’, ‘내용의 수준과 범위’, ‘진술 방법 및 지면 구성’, ‘기타’로 나뉘어져 기술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내용의 선정과 조직’ 부분에는 다음과 같은 집필 유의점이 제시되어 있다.

[내용의 선정]

- ① 문학 과목의 교육과정에 제시된 성격과 목표, 문학 교육의 취지를 충실히 드러낼 수 있는 내용을 선정한다.
- ② 내용은 학생의 욕구에 충족시킬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재미있고, 감동적이며, 학생들에게 교훈적인 것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 ③ 주제별, 장르별, 시대별, 한국·세계문학 등을 고려하여 어느 특정 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내용을 균형 있게 선정한다.
- ④ 수록 작품은 문학사적으로 문학적, 교육적으로 공인된 평가를 받은 것을 선정하고, 전작을 원문대로 수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작품 전체 내용의 요약이나 주석을 붙인다.
- ⑤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지식 정보 사회에 필요한 바람직한 가치관 형성과 창조력 신장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을 선정한다.
- ⑥ 외국 문학 작품은 어느 한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되, 수업 시수 기준

14) 민족문학교육회, 『문학 교육의 방법』, 한길사, 1991, 256쪽.

으로 전체의 20%를 넘지 않아야 한다.

[내용의 조직]

- ① 단위 배당 기준(8단위)에 알맞은 분량을 선정하여 창의적으로 조직한다.
- ② 상권과 하권으로 나누어 편찬하되 학습의 연관성, 연속성, 문학적 관점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조직한다.
- ③ 국어 과목의 ‘문학’ 영역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심화 학습이 이뤄지도록 내용을 조직한다.
- ④ 문학 과목의 특성을 살려 수용과 창작 활동에 중점을 두고,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며, 쉽고 재미있게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조직한다.
- ⑤ 교육과정의 ‘4. 교수·학습 방법’을 참고하여 학생 중심의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교수·학습 과정이 드러나게 내용을 조직한다.¹⁵⁾

위의 제시문에서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내용의 선정]에서 ‘주제별, 장르별, 시대별, 한국·세계문학 등을 고려하여 어느 특정 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내용을 균형 있게 선정한다.’이다. 이것은 내용의 선정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균형성’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자칫 어떤 한 부분이 편중되어 강조될 경우, 이러한 내용을 수용하는 학생들이 잘못된 선입견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18종의 문학 교과서 중에서 사실시조를 실고 있는 출판사는 도서출판 태성을 제외한 총 17종이다. 출판사별 수록 작품명, 작가, 수록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출판사 ¹⁶⁾	작품명	작자	수록 유형 ¹⁷⁾
교학사(구)	딕들에 동난지이 사오	미상	본문학습의 학습 활동 자료

15) 교육인적자원부, 「제7차 교육과정 2종 교과도서 집필 유의점(고등학교)」, 교육인적자원부, 2001, 27쪽.

	흔 눈은 멀고 흔 다리	미상	본문학습 자료
교학사(김)	창 내고자 창을 내고자	미상	본문학습 자료
	나모도 바히 돌도	미상	대단원 마무리 및 수준별 학습 자료
금성출판사	나모도 바히 돌도	미상	본문학습 자료
	두터비 프리 물고	미상	본문학습의 학습 활동 자료
대한교과서	붉가버슨 아해 들리	이정신	대단원 마무리 및 수준별 학습 자료
	두터비 프리를 물고	미상	대단원 마무리 및 수준별 학습 자료
두산	나모도 바히 돌도	미상	본문학습 전 예비학습 자료
	두터비 프리 물고	미상	본문학습 자료
	딕들에 동난지이 사오	미상	본문학습의 학습 활동 자료
디딤돌	창 내고자 창을 내고자	미상	본문학습 자료
문원각	귀쏘리 저 귀쏘리	미상	본문학습 자료
민중서림	창내고자 창을 내고자	미상	본문학습 전 예비학습 자료
	쇠어마님 떠느라기 낫바	미상	본문학습의 학습 활동 자료
블랙박스	나모도 바히 돌도	미상	본문학습 자료
	쇠어마님 떠느라기 낫바	미상	본문학습 자료
	딕들에 동난지이 사오	미상	본문학습 자료
	두터비 프리 물고	미상	본문학습 전 예비학습 자료
	님이 오마 흐거늘	미상	본문학습 전 예비학습 자료
상문연구사	갓나희들이 여러 층이	김수장	본문학습의 학습 활동 자료
	두터비 프리 물고	미상	대단원 마무리 및 수준별 학습 자료
중앙교육진흥연구소	벗흙도 쉬여 넘느 고기	미상	본문학습 자료
	창밖이 어른어른커늘	미상	본문학습 전 예비학습 자료
	장진주사	정철	본문학습 전 예비학습 자료
	두터비 프리 물고	미상	본문학습 자료
	기를 여라문이라 기르되	미상	본문학습 전 예비학습 자료
	딕들에 동난지이 사오	미상	본문학습 전 예비학습 자료
	나모도 바히돌도 없슨	미상	본문학습 자료
지학사(권)	님이 오마 흐거늘	미상	대단원 마무리 및 수준별 학습 자료
	내게는 원수1가	미상	본문학습 전 예비학습 자료
	귀쏘리 저 귀쏘리	미상	본문학습 전 예비학습 자료
	나모도 바히돌도 없슨	미상	본문학습 자료
지학사(박)	님이 오마 흐거늘	미상	대단원 마무리 및 수준별 학습 자료
	논밭 갈아 기음 매고	미상	본문학습 전 예비학습 자료
천재교육	개야미 불개야미	미상	본문학습 자료
	귀쏘리 저 귀쏘리	미상	본문학습 자료
	딕들에 동난지이 사오	미상	본문학습 자료
	논밭 갈아 기음 매고	미상	본문학습 자료
	쇠어마님 떠느라기 낫바	미상	본문학습 자료
	창 내고자 창을 내고자	미상	본문학습 자료
	한숨아 세한숨아	미상	본문학습의 학습 활동 자료
청문각	쇠어마님 떠느라기 낫바	미상	본문학습 전 예비학습 자료
	창 내고자 창을 내고자	미상	본문학습 자료

	귀쪼리 저 귀쪼리	미상	본문학습 자료
	두터비 프리 물고	미상	본문학습 자료
한국교육 미디어	두터비 프리 물고	미상	본문학습 전 예비학습 자료
형설출판사	두터비 프리 물고	미상	본문학습 자료
	나모도 돌도 바히	미상	본문학습 자료
	개를 여라믄이라	미상	본문학습의 학습 활동 자료

위의 표를 보면 먼저 수록 작품의 작자가 거의 작자미상의 작품들만이 편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전해지는 사설시조 작품들 중, 작자미상의 작품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작자의 이름이 밝혀진 작품들도 있다. 금성출판사에서 이정신의 작품을 수록하였고, 블랙박스에서 김수장의 작품을, 중앙교육진흥연구소에서 정철의 작품을 수록한 것이 그나마 유명씨의 작품을 수록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마저도 본문학습 자료로 다루지 않은 것으로 보아, 18종 문학 교과서에서는 무명씨의 작품만을 주로 반영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무명씨 작품만을 강조하는 것은 사설시조의 진면목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또한 문학 교과서가 무려 18종임에도 불구하고, 중복 작품도 많은 것도 역시 작품 선정의 균형성에 문제가 된다.¹⁸⁾ 이것은 아마도 교과서에 수록할 수 있는 작품은 한정되었으므로

16) 한 출판사 중에서 저자가 다른 교과서는 괄호 안에 대표 저자의 성을 따서 표시하였다.

예) 구인환 외 5인 공저, 『문학』, (주식회사 교학사 발행) → 교학사(구)

17) 수록 유형은 크게 4가지로 나누었다. 먼저, 길잡이 학습 및 단원 설명을 예시와 그에 따른 확인 학습 자료로 구성 되어 있는 것을 ‘본문학습 전 예비학습 자료’로 표시하였고, 본시 작품으로 편성된 작품들은 ‘본문학습 자료’로, 본문 학습과 관련된 학습 활동 자료로 수록된 것은 ‘본문학습의 학습 활동 자료’, 대단원 마무리 및 수준별 학습(보충·심화) 자료를 ‘대단원 마무리 및 수준별 학습 자료’로 구별하여 표시하였다.

18) 작품에 따라 수록 교과서를 분류해 보면 표로 다음과 같다.

작품명	수록 교과서명
두터비 프리 물고	금성출판사, 두산, 블랙박스, 상문연구사, 중앙교육진흥연구소, 청문각, 한국교육미디어, 형설출판사 (8종)
나모도 바히 돌도	교학사(김), 금성출판사, 두산, 민중서림, 중앙교육연구소, 지학사(권), 형설출판사 (7종)
창 내고자 창을 내고자	교학사(김), 디딤돌, 민중서림, 천재교육, 청문각 (5종)

작품성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사설시조 작품들을 위주로 수록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러한 중복된 작품들로 인해 학습자들은 사설시조의 전체적인 면모를 살피지 못한 채, 잘못된 선입견을 가질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사설시조를 많이 수록한 출판사는 중앙교육진흥연구소이지만, 이 출판사에서는 주로 본문 학습 전 예비학습 자료의 형태로 사설시조를 수록하였다. 따라서 본문학습 자료로 많이 수록한 천재교육이 사설시조의 작품을 비교적 비중 있게 다뤘다고 생각한다.

본고에서는 위의 표에 제시된 『문학』 교과서 중 ‘본문학습 자료’로 수록된 작품을 중심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2. 단원 설정과 문제점

18종 문학 교과서는 7차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를 따르고 있다. 7차 교육

뒤편에 동난지이 사오	교학사(구), 두산, 블랙박스, 중앙교육진흥연구소, 천재교육 (5종)
넘이 오마 흐거늘	블랙박스, 중앙교육진흥연구소, 지학사(권) (4종)
귀쪼리 저 귀쪼리	문원각, 지학사(권), 천재교육, 청문각 (4종)
식어마님 며느라기 낮바	민중서림, 블랙박스, 천재교육, 청문각 (4종)
논밭 갈아 기음 매고	지학사(박), 천재교육 (2종)
갓나희들이 여러 층이	블랙박스 (1종)
벗림도 쉬여 넘느 고기	상문연구사 (1종)
창밖이 어른어른커늘	중앙교육진흥연구소 (1종)
장진주사	중앙교육진흥연구소 (1종)
내게는 원수1가	지학사(권) (1종)
개야미 불개야미	지학사(박) (1종)
한습아 세한습아	천재교육 (1종)
개를 여라믄이라	형설출판사 (1종)
흐 눈은 멀고 흐 다리	교학사(구) (1종)
붉가버슨 아해 들리	금성출판사 (1종)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 체계를 제시하고 있다.

영역	내용
(1) 문학의 본질	(가) 문학의 특성 (나) 문학의 기능 (다) 문학의 갈래 (라) 문학의 가치
(2) 문학의 수용과 창작	(가) 문학의 수용과 창작 원리 (나) 문학의 수용 (다) 문학의 창조적 재구성 (라) 문학의 창작
(3) 문학과 문학	(가) 문학 문화의 특성 (나) 한국 문학의 특질과 흐름 (다) 세계 문학의 양상과 흐름 (라) 문학의 인접 영역
(4) 문학의 가치화와 태도	(가) 문학의 가치 인식 (나) 문학 활동에의 능동적 참여 (다) 문학에 대한 태도

현재 교과서 집필자들은 교육과정을 근거로 해서 교과서를 집필하게 된다. 집필자들은 위의 표인 [내용 체계]를 따라 임의적으로 단원명과 학습 목표를 설정하였다. 문학 교과서의 서술 방식은 장르론(갈래론)적 접근, 주제론적인 접근, 문학사적 접근의 세 가지가 있을 수 있다.¹⁹⁾ 18종 『문학』 교과서에는 어느 것을 중점으로 두고 있느냐만 다를 뿐, 이 세 방식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다음 표를 통해 『문학』 교과서 내용영역별 사설시조 수록 양상을 알 수 있다.²⁰⁾

19) 민족문학교육회, 『문학 교육의 방법』, 한길사, 1991, 275쪽.

20) 본고에서는 본문학습 자료로 제시된 작품들을 대상으로 수록하였기 때문에, 대한교과서와 한국교육미디어를 제외한, 15종을 제시하였다. 또한 ‘금성출판사→금성, 상문연구사→상문,

	문학의 본질	문학의 수용과 창작	문학과 문화	문학의 가치화와 태도
교학사(구)			●	
교학사(김)		●		
금성출판사			●	
두산			●	
디딤돌		●		
문원각			●	
민중서림			●	
블랙박스			●	
상문		●		
중앙		●	●	
지학사(권)			●	
지학사(박)			●	
천재		●	●	
청문각			●	
형설			●	

『문학』 교과서의 사설시조의 수록 단원을 살펴 보면, 주로 ‘문학과 문화’ 영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중에서도 ‘한국 문학의 특질과 흐름’에 편중되어 있다. 사설시조 작품 외에 기타 고전 문학 작품들도 이 영역에 집중적으로 속해 있는 것으로 보아 ‘한국 문학의 특질과 흐름’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고전 문학 작품이 적합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 중에서도 한국 시가 문학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시조가 이 부분에서 비중 있게 다루지고 있다. 이 외에 ‘문학의 수용과 창작’에서도 사설시조가 수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설시조가 창작 교육에도 적절히 활용되고 있음을 보

중앙교육진흥연구소→중앙, 천재교육→천재, 형설출판사→형설’로 표기하였다. 이후에도 이와 같은 표기를 따르고자 한다.

여 준다.

그러나 문학 교과서가 18종임에도 불구하고 편중된 영역에만 수록되어 있는 것은 아쉬운 점이다. 사설시조는 시조라는 장르적 특성이 있기 전에, “국어 문화의 한 분야인 언어 예술”²¹⁾이다. 따라서 ‘문학의 수용과 창작’과, ‘문학과 문화’의 영역 이외에도 ‘문학의 본질’, ‘문학의 가치화와 태도’에서도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3. 텍스트 양상과 문제점

김종열²²⁾은 심재완 편저의 『교대역대시조전서』(세종문화사, 1972)을 통해 사설시조가 480여수에 이른다고 보았다. 그러나 현재 18종에 수록된 사설시조는 그리 많지 않다.

시대	작품명	작자	주제	수록 횟수
조선후기	흔 눈은 멀고 흔 다리	미상	풍자	1
조선후기	창 내고자 창을 내고자	미상	한탄	4
조선후기	나모도 바히 돌도	미상	애정	5
조선후기	두터비 폭리 물고	미상	풍자	4
조선후기	귀쪼리 저 귀쪼리	미상	애정	3
조선후기	식어마님 며느라기 낮바	미상	풍자	2
조선후기	턱들에 동난지이 사오	미상	풍자	2
조선후기	브릅도 쉬여 넘느 고기	미상	애정	1
조선후기	개야미 불개야미	미상	풍자	1
조선후기	논밭 갈아 기움 매고	미상	전원	1
계				24

21) 교육 인적 자원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2 국어(교육부 고시 1997-15호)』, 2001, 5쪽.

22) 김종열, 「사설시조의 작가 의식 연구」, 강원대 박사학위 논문, 2005, 52쪽.

18종 문학 교과서에서 본문 학습 자료로 수록된 사설시조는 총 10수이다. 가장 많이 수록된 작품은 <나모도 바히 돌도>이다. 이 작품은 <삼한(三限)> 혹은 <삼안(三內)>으로 불리기도 한다. <나모도 바히 돌도>는 임을 여윈 자신의 한스러운 심정을 적절하게 표현하였는데, 기발한 비유와 점층법과 과장법을 사용하여, 높은 문학성을 획득하고 있다.

<창 내고자 창을 내고자>는 고달픈 세상살이의 비애와 고통을 뛰어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 주고 있는 작품이다. 세상살이의 고달픔에서 오는 답답한 가슴을 꼭 막힌 방에 빗대고, 거기에 창을 달아 답답한 심정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는 기발하고 신선한 발상을 보여 주고 있다.

<두터비 푼리를 물고>는 두꺼비, 파리, 백송골 등 동물을 의인화하여 세태를 풍자하고 있는 사설시조이다. 나약한 백성(푼리)들을 못살게 굴던 사대부 계층이 자신보다 더 힘이 센 대상 앞에서 비굴해지는 태도를 익살스럽게 풍자하고 있다.

이 외에 <귀쪼리 저 귀쪼리>는 사랑하는 임과의 이별한 여인의 외로움을 그리고 있으며, <식어마님 며느라기 낫바>는 시집살이의 고충을, <딧들에 동난지이 사오>에서는 서민들의 상거래 장면을 통해, 사대부들의 허세를 풍자한다, 또한, <흔 눈은 멀고 흔 다리>에서 사대부들의 허장성세를 풍자하고 있고, <브롬도 쉬여 넘느 고기>에서는 사랑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으며, <개야미 불개야미>에서는 참언에 대한 경계를, <논밭 갈아 기음 매고>에서는 자연속에서 누리는 한가로운 삶을 노래하고 있다.

수록된 작품들의 주제를 보면, 24수 중, 풍자를 주제로 한 작품이 10수이며, 애정을 주제로 한 작품은 9수이다. 이를 통해 교과서에 수록된 사설시조들은 풍자와 애정을 주제로 한 작품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시대와 작자는 모두 각각 조선후기와 작자 미상의 작품들을 수록하였다.

작품의 선택은 교과서가 ‘가르쳐야 할 것’을 한정해 준다고 볼 때, 중요한 일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위의 현황을 살펴 볼 때, 현재 사설시조 교육은 텍

스트가 너무 한정되어 있고, 이에 따른 주제 의식, 미의식 또한 폭넓은 사설 시조의 모습을 다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주제별, 장르별, 시대별, 한국·세계문학 등을 고려하여 어느 특정 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내용을 균형 있게 선정한다.²³⁾

위에 제시한 것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제시한 내용 선정의 유의점 중 세 번째 항목이다. 이에 비추어 봤을 때 현행 사설시조의 교육은 텍스트를 균형 있게 제시하지 않고, 특정한 주제와 미의식만을 토대로 한 텍스트만을 제시하고 있어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텍스트 선정은 결국 학습자들이 다양한 사설시조 작품들을 접하지 못하게 하여, 제한된 내용만을 학습하게 된다.

4. 목표-학습 활동 수록 양상과 문제점

목표-학습 활동 수록 양상은 가장 많은 교과서에 본문으로 수록된 <나모도 바히 돌도>을 중심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나모도 바히 돌도>는 총 5개의 출판사가 본문학습 자료의 형태로 수록하였는데, 목표와 학습 활동 수록 양상을 보면 다음과 같다.

출판사	단원명	
	학습 목표	교수-학습 활동
금성	Ⅲ. 민족 문학의 흐름/ 3. 국문 문학의 형성과 발전 / (4) 사설시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시조와 그 형식에 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 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교되고 있는 ‘삼안(三內)’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보자. ▪ 이 작품과 다음 작품 <두터비 폭리를

23) 교육인적자원부, 「제7차 교육과정 2종 교과도서 집필 유의점(고등학교)」, 교육인적자원부, 2001, 27쪽.

		<p>물고>을 비교하여 형식상의 공통점과 표현상의 차이점을 말해 보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시조의 화자와 다음 시 (한용운의 <님의 침묵>)의 화자의 심리 상태를 비교해 보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둠원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자. ▪ 생활 사설시조 짓기
민중서립	<p>II. 한국 문학의 특질과 흐름 / 5. 조선 후기의 문학 / (2) 조선 후기의 시조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 후기 시조 작품들의 형식과 내용상 특질을 이해한다. ▪ 조선 후기 시조 문학의 여러 동향에 대하여 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토리, 도사공, 나’의 ‘안’은 어떤 면에서 공통점을 갖는지 말해 보자. ▪ 사설시조의 작자층과 대표작을 조사해 보자. ▪ 사설시조의 표현 기법과 미의식에 대해 알아보자. ▪ 사설시조(<쇠어마님 며느라기 낫바>제시)와 현대의 랩에 담긴 의식과 표현상의 특징을 알아 보자.
중앙	<p>II. 한국 문학의 흐름 / 4. 근대 여명기의 문화와 문학 / (1) 시조 네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대 여명기 문학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이해한다. ▪ 근대 여명기 문학의 특징과 그 속에 담긴 선조들의 삶을 이해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작품의 표현상의 특징을 찾아 보자. ▪ 작가, 내용, 형식의 측면에서 이 시기의 시조가 그 이전 시기의 시조에서 어떻게 변모했는지 정리해 보자.
지학사 (권)	<p>I. 한국 문학의 특질과 흐름 / 2. 조선 시대의 문학 / (2) 조선 시대 문학의 갈래와 전개 / -시조 5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을 통해 평시조, 연시조, 사설시조의 갈래별 특질을 이해하자. ▪ 시조의 작자층과 창작 시대에 따른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자의 중심적인 정서는 어떤 것인지 말해 보자. ▪ 중장이 파격적으로 늘어난 것은 화자의 감정을 더 절실하게 나타내기 위한 비유적 상황을 열거 묘사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표현 방식은 사설시조의

	<p>의 변화를 살펴 보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조를 통해 우리 조상들의 사상과 감정을 내면화하자. 	<p>일반적인 감정 표현 방식과 어떻게 연관되었는지 설명해 보자.</p>
형설	I. 문학의 흐름(1) / 4. 조선 후기의 문학 / (1) 시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 전기 시조에서 조선 후기 시조로의 변모 과정을 이해한다. ▪ 사설시조에 대해서 이해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모도 바히 돌도>의 화자가 처한 상황은 어떠한지 알아보자. ▪ <나모도 바히 돌도>의 중장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 살펴보고, 그러한 표현상의 특징이 이 시의 의미 형성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생각해 보자. ▪ <나모도 바히 돌도>을 평시조와 같은 음악에 얹어 부른다면 노래의 느낌이 어떻게 달라질지 이야기해 보자.

1) 단원 목표-학습활동과의 관련성

먼저 제시된 학습활동이 학습목표를 잘 반영한 활동인지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다.

금성 출판사의 목표는 ‘평시조와 그 형식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자’이다. 학습활동으로 총 네 가지로 제시되어 있는데, 첫 번째 학습활동은 ‘비교되고 있는 ‘삼안(三內)’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보자.’로 내용 확인을 위한 활동이라 하겠다. 두 번째 학습활동은 ‘이 작품과 다음 작품(<두터비 푼리를 물고>)을 비교하여 형식상의 공통점과 표현상의 차이점을 말해 보자.’인데, 이것은 사설시조의 표현상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한 학습활동이다. 사설시조의 형식상의 특징과 표현의 다양성에 대해 학습할 수 있는 활동으로

는 좋다고 여겨지나, 평시조와의 차이점을 알기에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학습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평시조를 제시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세 번째 학습활동은 ‘이 시조의 화자와 다음 시 (한용운의 <님의 침묵>)의 화자의 심리 상태를 비교해 보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둠원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자.’이다. 이것은 화자의 심리 상태를 현대시와 연계하여 나타낸 것으로서, 문제 자체는 참신하다고 생각되나, 이것 또한 목표와는 거리가 있는 문제이다. 마지막 학습활동 역시 사설시조를 지어 보는 창작 활동으로 목표와는 거리가 있다. 결국 금성출판사에서는 ‘사설시조’의 내용, 형식, 창작에 관련된 문제를 충실하게 실었으나, 목표에 도달할 만한 명확한 학습 활동 문제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민중서림에서는 윤선도의 <어부사시사 中 춘사 1>, <어부사시사 中 추사 2>, 그리고 김수장의 <초암이 적료흔디~>와 함께 수록되어 있다. 민중서림은 ‘조선 후기 시조 작품들의 형식과 내용상 특질을 이해한다.’, ‘조선 후기 시조 문학의 여러 동향에 대하여 안다.’의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나모도 바히 돌도>와 관련된 첫 번째 학습활동은 ‘가토리, 도사공, 나’의 ‘안’은 어떤 면에서 공통점을 갖는지 말해 보자.’로 내용 확인을 위한 활동이다. 두 번째 학습활동은 ‘사설시조의 작자층과 대표작을 조사해 보자.’인데, 이 활동을 통해서 평시조와 다른 사설시조의 작자층과 대표작을 알아봄으로써 조선 후기 시조 문학의 새로운 변화를 알 수 있다. 이것은 ‘조선 후기 시조 문학의 여러 동향에 대하여 안다.’라는 목표와 관련된 활동이라고 여겨지나, 구체적인 방법이나 유형이 제시되지 않아서, 학습자들이 어려움을 느낄 것으로 생각된다. 세 번째 문제는 ‘사설시조의 표현 기법과 미의식에 대해 알아보자.’이다. 이 활동은 ‘조선 후기 시조 작품들의 형식과 내용상 특질을 이해한다.’와 관련된 학습활동이다. 이 학습활동도 역시 너무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문제점이 있다. 마지막 학습활동은 ‘사설시조와 현대의 랩에 담긴 의식과 표현상의 특징을 알아 보자.’이다. 학습자들에게 친숙한 ‘랩’을 통해 사설시

조를 이해하는 참신한 활동이라는 느낌을 준다. 이 활동은 ‘조선 후기 시조 작품들의 형식과 내용상 특질을 이해한다.’라는 목표와 관련된 활동이라고 생각한다.

중앙에서는 신희의 <노래 삼긴 사름~>과, 권섭의 <소의(笑矣)>, 위백규의 <농가구장 中 4장>이 함께 수록되어 있다. 학습 목표는 ‘근대 여명기 문학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이해한다.’, ‘근대 여명기 문학의 특징과 그 속에 담긴 선조들의 삶을 이해한다.’로 ‘근대 여명기의 문학’이라는 단원명과 맞는 학습 목표가 설정되어 있다. 중앙에서는 사설시조와 관련된 학습활동으로 두 가지의 활동이 있다. 첫 번째는 ‘이 작품의 표현상의 특징을 찾아 보자.’로 표현상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한 문제라 하겠다. 두 번째 학습 활동은 ‘작가, 내용, 형식의 측면에서 이 시기의 시조가 그 이전 시기의 시조에서 어떻게 변모했는지 정리해 보자.’이다. 이 학습활동은 근대 여명기의 문학 중에 하나인 사설시조의 특징과 관련된 활동으로서 ‘근대 여명기 문학의 특징과 그 속에 담긴 선조들의 삶을 이해한다.’에 적합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중앙에서는 사설시조 외에도 다양한 작품이 실린 만큼 학습목표 모두가 사설시조 작품에 부합되지는 않았다.

지학사(권)에서는 조식의 <삼동에 뵈웃 님고~>와 성혼의 <말 업슨 청산이오~>, 홍량의 <뫼머들 갈히 것거~>, 정철의 <훈민가>와 함께 수록되어 있다. 학습 목표는 작품을 통해 ‘평시조, 연시조, 사설시조의 갈래별 특질을 이해하자.’, ‘시조의 작자층과 창작 시대에 따른 내용의 변화를 살펴 보자.’, ‘시조를 통해 우리 조상들의 사상과 감정을 내면화하자.’로 설정되어 있다. 첫 번째 학습활동은 ‘화자의 중심적인 정서는 어떤 것인지 말해 보자.’로 작품의 내용 이해와 관련된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학습활동은 ‘중장이 파격적으로 늘어난 것은 화자의 감정을 더 절실하게 나타내기 위한 비유적 상황을 열거 묘사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표현 방식은 사설시조의 일반적인 감정 표현 방식과 어떻게 연관되었는지 설명해 보자.’인데, 이것은

사설시조의 표현 방식을 이해하기 위한 활동이다. 첫 번째 활동과 두 번째 활동은 내용과 표현 방식을 이해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학습 목표 중, ‘평시조, 연시조, 사설시조의 갈래별 특질을 이해하자.’와 관련된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지학사의 경우도 중앙과 마찬가지로 사설시조를 포함하여 총 5작품을 함께 묶어서 수록하였기 때문에, 모든 학습 목표가 사설시조와 관련된 학습활동에 수용되지는 않았다.

형설은 윤선도의 <어부사시사>와 안민영의 <어리고 성권 매화~>, <두터비 프리를 물고>와 함께 <나모도 바히 돌도>를 수록하고 있다. 형설의 학습 목표는 ‘조선 전기 시조에서 조선 후기 시조로의 변모 과정을 이해한다.’, ‘사설 시조에 대하여 이해한다.’로 설정하였다. 첫 번째 학습활동은 ‘<나모도 바히 돌도>의 화자가 처한 상황은 어떠한지 알아보자.’로 내용 확인에 관련된 활동이다. 두 번째 학습활동은 ‘<나모도 바히 돌도>의 중장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 살펴보고, 그러한 표현상의 특징이 이 시의 의미 형성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생각해 보자.’로 ‘사설시조에 대하여 이해한다.’와 관련된 문제라 하겠다. 세 번째 학습활동은 ‘<나모도 바히 돌도>을 평시조와 같은 음악에 얹어 부른다면 노래의 느낌이 어떻게 달라질지 이야기해 보자.’이다. 이 활동은 옛시조의 향유 방식이 노랫말에 얹어 부르는 성악곡이었다는 점을 관련지어 낸 학습활동이라는 점에서 매우 참신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 활동을 통해 조선 전기를 대표하는 평시조와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사설시조의 차이점을 알 수 있으므로, ‘조선 전기 시조에서 조선 후기 시조로의 변모 과정을 이해한다.’라는 학습 목표와 관련된 활동이라고 하겠다.

이 외에 작품들을 좀 더 살펴보면, <창 내고자 창을 내고자>는 교학사(김), 디딤돌, 천재, 청문각 총 4종의 교과서에 본문 학습 자료로 수록되어 있다. 이 중에 천재에서는 ‘시에 사용되는 언어의 특질을 알 수 있다.’ ‘시에서 운율의 개념과 기능을 이해할 수 있다.’ ‘시어와 운율의 중요성을 알고

이를 바탕으로 시를 창작할 수 있다.’는 학습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즉, ‘시의 언어와 운율’이라는 측면에서 사설시조의 텍스트를 제시한 것이다. 이 목표와 관련된 학습 활동으로 평시조와 사설시조를 시조창으로 들어봄으로써 느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해보는 학습활동²⁴⁾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는 시조의 운율을 확인해 본다는 점에서 학습목표와 부합될 뿐만이 아니라, 시조가 노래라는 점도 학습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참신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두터비 프리 물고>는 두산, 중앙, 청문각, 형설 총 4종의 교과서에 본문 학습 자료로 수록되었다. 이 중 중앙의 경우, 학습 활동 문제가 ‘<두터비 프리 물고>에 반영된 사회 모습을 추리하여 정리해 보자.’이다. 이것은 학습 목표 중 ‘시에 반영된 사회 모습 추리하기’를 의도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문제가 너무 추상적이어서 학생들이 이 문제를 접근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귀쫂리 저 귀쫂리>는 문원각, 천재, 청문각 총 3종에 수록되었다. 이 중 문원각의 경우, 학습 목표로 ‘시조의 형식적 특징을 알고 감상한다.’ ‘시조에 투영된 미의식을 이해하고 감상한다.’를 설정하고 있다. 이에 관련된 학습 활동으로 ‘<강호에 ㄱ올이 드니~>와 같은 시조 형식이 <귀쫂리 저 귀쫂리>처럼 변화한 이유를 시대적 배경과 관련지어 설명해 보자’가 제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학습 목표 중 ‘시조의 형식적 특징을 알고 감상한다.’와 관련된 활동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아무런 보충자료도 없이 학생들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귀쫂리 저 귀쫂리>와 박용래의 시 <월훈>을 함께 감상하고, 시적 자아가 처한 상황을 말해 보자.’의 학습 활동이 있는데, 이것은 두 번째 학습 목표인 ‘시조에 투영된 미의식을 이해

24) 1. 시조창을 구해 들어 보고, 다음의 활동을 해 보자.

- (1) 작품을 노래로 듣는 것과 눈으로 읽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가?
- (2) 평시조와 사설시조는 창으로 들을 때 그 느낌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천재 교과서, 95쪽.

하고 감상한다.’와 관련된 문제로 생각된다. 또한 전통 시조와 현대시를 함께 감상하고, 시적 자아가 처한 상황에 대해 생각해 보는 활동을 함으로써, 문학이 인간의 보편적인 정서를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옛 시조와 오늘의 시에 나타난 공통된 정서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문제라고 생각한다. 다만 이 문제도 역시 구체적인 학습 활동을 제시하였다면, 학생들이 접근하기에 더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학습 활동을 분석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부분의 교과서에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학습활동을 제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학습활동 문제가 너무 추상적으로 제시한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학습활동이 제시되어야 학습자들의 능동적인 학습을 유도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작품을 통해 문학의 가치를 내면화하기 보다는 작품의 감상에 초점을 맞춘 문제들이 많았다. 뿐만 아니라 수록된 학습 단원들이 주로 ‘한국문학의 특질과 흐름’이었다는 점 때문인지, 문학 교과서간의 문제들이 비슷한 유형이 많고, 참신한 문제를 찾기가 어려웠다. 학습 활동 문제 유형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2) 학습활동 문제 유형

학습활동은 네 가지의 유형으로 정리해 볼 수 있었다. 첫 번째 유형은 내용 이해 활동이다. 이 유형은 수록된 사설시조의 내용 이해를 위하여 설정된 문제로, 시의 내용을 얼마나 올바르게 감상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 문제이다.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이 유형에 속한다.

- 비교되고 있는 ‘삼안(三內)’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보자. [금성]
- 이 시조의 화자와 다음 시 (한용운의 <님의 침묵>)의 화자의 심리 상태

를 비교해 보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둠원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자. [금성]

- ‘가토리, 도사공, 나’의 ‘안’은 어떤 면에서 공통점을 갖는지 말해 보자. [민중서림]
- 화자의 중심적인 정서는 어떤 것인지 말해 보자. [지학사(권)]
- <나무도 바히 돌도>의 화자가 처한 상황은 어떠한지 알아보자. [형설]²⁵⁾

대부분의 출판사들이 내용 이해와 관련된 문제를 수록하였다. 이는 학습 목표에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목표에 도달하는 데 있어 내용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일 것이다.

두 번째 유형은 표현 기법과 미의식에 관련된 문제이다. 사설시조 표현기법을 중심으로 한 학습활동도 많이 있었는데, 이것은 사설시조의 두드러진 특징으로 표현기법을 꼽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 유형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있다.

- 이 작품과 다음 작품 <두터비 풍리를 물고>을 비교하여 형식상의 공통점과 표현상의 차이점을 말해 보자. [금성]

25) 이 유형에 속하는 학습 활동 문제로, 기타 작품들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사설시조에서 비판하고자 하는 당시의 세태를 말해 보자. [교학사 (구)] <흔 눈은 멀고 흔 다리>
- 화자가 사물을 늘어놓은 이유는 무엇인지 말해 보자. [교학사 (김)] <창 내고자~>
- 이 시조에서 ‘두꺼비’, ‘백송골’, ‘파리’가 비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당시의 시대상과 관련지어 생각해 보자. [두산] <두터비 풍리 물고>
- ‘귀또리 저 귀또리~’와 박용래의 시 ‘월훈’을 함께 감상하고, 시적 자아가 처한 상황을 말해 보자. [문원각(하)] <귀또리 저 귀또리>
- <두터비 풍리를 물고~>에 반영된 사회의 모습을 추리하여 정리해 보자. [중앙] <두터비 풍리를 물고>
- ‘개미’와 ‘가람’의 상징적 의미는 무엇인가? , 중장에 나타난 ‘말’의 주체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중장의 ‘님’의 의미와 대상을 생각해 보자. [지학사(박)] <개야미 불개야미>
- 각 시조의 주제를 알아보자. [청문각] <창내고자 창을 내고자> <두터비 풍리를 물고> <귀또리 저 귀또리>
- ‘창 내고자 창을 내고자~’와 ‘귀또리 저 귀또리~’는 둘 다 비슷한 내용을 노래하고 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시적 화자가 처한 상황을 유추하여 말해 보자. [청문각] <창내고자 창을 내고자> <두터비 풍리를 물고> <귀또리 저 귀또리>

- 이 작품의 표현상의 특징을 찾아 보자. [중앙]
- 사설시조의 표현 기법과 미의식에 대해 알아보자. [민중서림]
- <나모도 바히 돌도>의 중장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 살펴보고, 그러한 표현상의 특징이 이 시의 의미 형성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생각해 보자. [형설]
- 사설시조(<쇠어마님 며느라기 낫바>제시)와 현대의 랩에 담긴 의식과 표현상의 특징을 알아 보자. [민중서림]
- 중장이 과격적으로 늘어난 것은 화자의 감정을 더 절실하게 나타내기 위한 비유적 상황을 열거 묘사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표현 방식은 사설시조의 일반적인 감정 표현 방식과 어떻게 연관되었는지 설명해 보자. [지학사(권)]²⁶⁾

교과서에는 표현 기법과 미의식에 관련된 문제가 상당수가 있었다. 이는 ‘한국 문학의 흐름’이라는 단원 설정과 관련하여, 사설시조가 이전의 문학과 다른 차이점을 알고자 하는 의도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민중서림의 문제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같은 형태의 문제들이다.

세 번째 유형은 장르의 이해에 관련된 문제이다. 사설시조라는 장르를 전반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문제로 사설시조의 작자층, 작품, 향유 방식 등의

26) 이 유형에 속하는 학습 활동 문제로, 기타 작품들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사설시조에 나타난 미적 특성에 대해 말해 보자. [교학사(구)] <흔 눈은 멀고 흔 다리>
- 평시조를 사설시조로, 사설시조를 평시조로 바꿔 보자. [교학사(구)] <흔 눈은 멀고 흔 다리>
- 평시조보다 늘어난 부분을 찾아 보고, 그렇게 된 까닭은 다양한 관점에서 설명해 보자. [두산(하)] <두터비 푸리 물고>
- 대상에 대한 태도와 정서 표출 방식에 유의하여 다음 시조(택들에 동난지이~)를 읽고, 위의 시조와 비교해 보자. [두산(하)] <두터비 푸리 물고>
- 강호에 ㄱ올이 드니~와 같은 시조 형식이 ‘귀또리 저 귀또리~’처럼 변화한 이유를 시대적 배경과 관련지어 설명해 보자. [문원각(하)] <귀또리 저 귀또리>
- <바람도 쉬여 넘고>는 사랑하는 입을 만나고 싶다는 강렬한 심정을 드러 내고 있다. 이런 심정을 어떤 표현 수법으로 강조하고 있는지 말해 보자. [상문] <바람도 쉬여 넘느 고기>
- 앞에서 감상한 여러 시조를 비교해 보고, 각각 어떠한 형식적 차이점이 있는지 말해 보자. [청문각] <창내고자 창을 내고자> <두터비 푸리를 물고> <귀또리 저 귀또리>

활동을 담고 있다. 또한, 평시조와의 차이점을 통해 사설시조의 장르적 특징을 이해하고자 하는 활동도 있다.

- 사설시조의 작자층과 대표작을 조사해 보자. [민중서림]
- 작가, 내용, 형식의 측면에서 이 시기의 시조가 그 이전 시기의 시조에서 어떻게 변모했는지 정리해 보자. [중앙]
- <나모도 바히 돌도>를 평시조와 같은 음악에 얹어 부른다면 노래의 느낌이 어떻게 달라질지 이야기해 보자. [형설]

이 유형의 문제들은 학생들이 자신의 배경지식으로 풀기에는 난해한 문제이다. 특히나 사설시조와 관련된 이론은 쟁점으로 남은 것은 많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무턱대고 과제를 제시해주기 보다는 교사가 적절한 자료들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창작과 관련된 문제로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었다.

- 생활 사설시조 짓기 [금성]²⁷⁾

‘문학의 수용과 창작’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창작 문제를 제시한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문제가 너무 추상적이고, 창작에 관한 안내가 없어서 아쉬웠다. 또한 이러한 문제가 학생들에게 얼마나 매력적인 문제로 다가갈지 의문이다. 구체적이면서도 참신한 문제 유형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27) 이 유형에 속하는 학습 활동 문제로, 기타 작품들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각 시조의 핵심적인 시어나 구절을 찾아보고, 제목을 붙여 보자. [문원각(하)] <귀또리 저 귀또리>
- 위의 시조와 같은 사설시조는 초장과 중장의 길이에 제한이 없고, 해학과 풍자의 내용을 자유로이 표현할 수 있다. 사설 시조의 이러한 특성을 염두해 두고, 자신이나 친구의 이름을 첫 음절로 하여 삼행시를 지어 보자. (시련을 극복하는 자세를 담은 것, 내용의 통일성을 갖출 것, 전체적인 어조를 일치시킬 것.) [지학사(박)] <개야미 불개야미>
- 각 시조에서 중요한 시어나 구절을 찾아보고, 그에 어울리는 제목을 붙여 보자. [청문각] <창내고자 창을 내고자> <두터비 꼭리를 물고> <귀또리 저 귀또리>

5. 사설시조 관련 쟁점의 반영 양상과 문제점

앞에서 이미 언급한 것처럼 사설시조는 많은 문제가 쟁점으로 남아있어서, 현재까지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분야이다. 따라서 교사는 사설시조의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들을 알고, 학생들에게 적절히 보충 설명을 할 수 있어야만 한다.

문학 교과서에는 [보충 자료]나 [심화 자료]를 통해 사설시조의 이론적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학습자들은 교사가 다른 보충 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한, 이러한 이론적 설명을 신뢰하게 되므로 적절한 내용이 제시되어 있는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학계의 연구적 동향을 제시한 후, 교과서의 사설시조에 대한 설명이 얼마나 충실하게 제시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사설시조의 개념 및 연원에 관한 문제

사설시조의 개념에 대한 문제는 크게 명칭에 관한 문제, 형식에 관한 문제, 연원에 관한 문제로 나뉘 볼 수 있다. 먼저 사설시조의 명칭에 대한 문제에 대해 학계의 논의를 살펴 보도록 하겠다.

사설시조의 명칭은 ‘사설시조’, ‘만횡칭(류)’, ‘장시조, 장형시조’ 등의 명칭이 사용되고 있지만 학술적 용어로서의 그 적합성에 관해서는 학자들간에 이견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²⁸⁾ 먼저 ‘만횡칭(류)’는 『청구영언』에서 비롯된 명칭이다.²⁹⁾ 이능우는 ‘만횡칭(류)’를 사설시조의 명칭으로 부를 것으로 주장

28) 김제현, 『사설시조 문학론』, 새문사, 1997, 12쪽.

29) 김천택의 『청구영언』(조선진서간행회, 1948)에는 다음과 같은 언급이 있다. “만횡칭류는 말이 음탕하고 뜻이 한루하여 모범이 되기는 부족하나 그 유래가 오래되어 일시에 버리기는 불가하기 때문에 특히 아래에서 살핀다.” 이것은 ‘원용문의 「사설시조의 개념과 명칭 문제」, 『時調生活』, 2004, 195쪽’에서 재인용하였다.

하고 있는데³⁰⁾ 이것은 사설시조를 시조의 범주에서 독립시켜 다른 장르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에서 나온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외에 ‘사설시조’와 ‘장시조, 장형시조’가 있는데, 이것은 사설시조를 어떠한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음악이나, 문학이나- 다르게 본 관점이라 할 수 있다. 먼저 ‘사설시조’의 명칭은 음악에서 비롯된 용어이다. 원래 시조 음악의 악곡 이름으로, 이들을 노랫말로 얹어 부르는 시조창의 대표적 악곡 이름이다. 즉 음악상 용어를 차용한 것이다. 최초로 ‘사설시조’를 문학상의 명칭으로 규정하여 사용한 학자는 가람이었다. 가람은 시조음악과 문학으로서의 시조(정형시)를 표현수단에 따라 구분하고, 소위 ‘사설시조’를 문학적·학문적 용어로 사용한 것이다.³¹⁾

한편 ‘사설시조’라는 용어가 음악과 문학을 하나로 인식한 바탕 위에서 사용하는 용어라는 점 때문에, 학자들 중에는 사설시조를 ‘장시조, 장형시조’로 지칭하기도 한다. 이것은 作에 초점을 둔 용어라고 볼 수 있다. 장시조는 平時調 또는 短時調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평시조보다는 다소간에 차이가 있지만 그보다는 길이가 길어졌다는 뜻에서 나온 명칭이다. 장형시조도 역시 평시조와는 달리 길어진 시조를 말하며, ‘長型’이란 마치 평시조를 ‘短型時調’로 본다면 엇시조를 ‘中型時調’로 사설시조를 ‘長型時調’로 부르는 경우처럼 어떤 고정된 시형이 있어 그것에 맞는 시조란 뜻으로 사용된 것이라 할 수 있다.³²⁾

하지만 사설시조가 원래 음악과 문학이 분리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굳이 음악과 문학을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따라서 학교 교육에서 기존

30) “만황청이란 말은 논설에서 이제 처음 사용되는 것 같아, 소위 사설시조라는 것을 필자는 이렇게 쓰고자 하는 바인데, 굳이 이런 어휘를 사용하려 함은 소위 사설시조라는 것을 종래 「시조」에 예속되어 있는 데서 분리시키고 독립시키고 싶기 때문이다. 진작부터 필자는 이것을 시조에서 분리시켜 생각하고 있는 바였다. 명칭조차를 달리할 필요가 있어서 (弄樂)이라 붙여 본 적도 있었다. 이 명칭은 역시 이번과 같이 허황한 조작은 아니었다.”-이능우, 『고시가논고』, 선명문화사, 1966, 287쪽.

31) 김제현, 『사설시조 문학론』, 새문사, 1997, 15쪽.

32) 황충기, 『장시조연구』, 국학자료원, 2000, 10쪽 참조.

에 붙린 ‘사설시조’라는 용어를 학생들에게 알려주어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으나, ‘장시조, 장형시조’의 명칭도 사설시조를 칭하고 있음을 알려주면 더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형태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학자들의 정의들을 살펴 보도록 하겠다. 먼저 이병기³³⁾는 “사설시조는 초장·중장·종장에 두 구절 이상 또는 중장 초구라도 평시조 그것보다 몇 자 이상으로 되었다. 그러나 초장·종장이 너무 길어서는 아니 된다.”로 정의한다. 김종식³⁴⁾은 “사설시조는 초·중·종 3장의 구법이나 자수가 평시조와 같은 제한이 없고서 아주 자유스러운 것으로 어조도 산문무체로 된 것이다.”고 정의하고 있다. 김사엽³⁵⁾은 “초·중장 모두 제한 없이 길고 중장도 어느 정도 길어진 것이다.”로 정의하였고, 조윤제³⁶⁾는 “그 형식은 사실적이었던 만큼 과거의 모든 구속을 타파하랴 하는 데서 훨씬 자유로운 형식을 취하여 초·중·종 3장 중에 어느 한 장이 임의로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엄격히 말하면 초장은 거의 길어지는 법이 없고, 중장이나 종장 중에 있어 어느 것이라도 마음대로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대개 중장이 길어지는 수가 많다.”로 정의하였다. 고정옥³⁷⁾은 사설시조의 개념을 형식상의 특징으로 “소설식으로 길어졌다, 가사 투와 민요풍이 혼입되었다는 점, 여상한 제경향이 한 작품 속에 잡연히 혼재하고 있다는 점, 새로운 중장 문구를 개척한 점”을 들고 있다. 이상의 학자들의 설을 보면 표현에 대해서 차이가 있으나, 공통적으로 3장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과, 대체로 중장이 길어진 것에서는 이견이 없다고 본다.

33) 이병기, 『국문학개론』, 일지사, 1978, 117쪽.

34) 김종식, 『시조개론과 작시법』, 대동문화사, 1950, 89쪽.

35) 김사엽, 『이조시대의 가요연구』, 대양출판사, 1956, 254쪽.

36) 조윤제, 『한국문학사』, 탐구당, 1978, 366쪽.

37) 고정옥, 『고장시조선주』, 정음사, 1949, 서문.

마지막으로 사설시조의 발생과 관련하여, 사설시조가 어디에서 연원되었는가에 대한 견해를 살펴 보도록 하겠다. 사설시조는 크게 평시조에서 파생한 것으로 보는 견해와 사설시조 자체를 독립된 장르서 보는 견해로 나뉜다.

먼저 사설시조를 평시조에서 파생한 것으로 보는 견해는 사설시조의 발생 측면에서 살펴 볼 때 발생 시기에는 차이가 있으나 ‘평시조의 파격 또는 변용으로 사설시조의 형성’이라는 공통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발생 측면 외의 사설시조에 대한 기타 연구에서도 사설시조가 평시조의 종속 장르임을 전제로 논의를 전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대한 견해로 먼저 정병욱³⁸⁾은 사설시조가 실학사상의 영향으로 17세기에 등장한 평민 문학의 일환이며, 이것은 산문정신에 따라 평민 문학의 일환으로서 산문정신에 따라 평시조 3장의 형태를 따르면서 18세기에 크게 성행한 장르라고 보고 있다. 조동일³⁹⁾은 사설시조를 오랜 유래를 가진 민요의 형식이 치밀어 오른 결과로 보고 있다. 이 견해는 민요의 자유로운 형식을 긍정적인 생활감정과 함께 평시조의 짜임새와 격조를 부정적으로 계승했다고 볼 수 있으며, 발생 시기는 하층의 문학으로 자라나다가 17세기 후반쯤 평시조를 의식하고 파괴하는 구실을 하면서 부각되었을듯하나 사설시조 형식이야 어느 때든지 있을 수 있었을 터이니 언제 생겨났다고 딱 잘라서 말하는 것은 무리라고 하였다.

이와 반대로 사설시조가 독립된 장르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 이능우⁴⁰⁾는 본래부터 평시조와 더불어 병존해온 병행장르, 즉 별개의 독립장르라는 견해를 주장하고 있다. 시조와 병행하여 서민층 속에서 상대에서부터 있어온 것이며, 작자층은 양반층에 대한 비판 대신 승려들에 대한 조롱과 야유를 일삼는 다는 점을 들어 도시의 중인, 상인과 같은 계층으로 보는 견해이다.

38) 정병욱, 「시조의 역사적 형태고」, 『현대문학』 46호, 1958.

39) 조동일, 『한국민요의 전통과 시가 율격』 지식산업사, 1996.

40) 이능우, 『고시가논고』, 선명문화사, 1966.

김제현⁴¹⁾은 사설시조가 고려속요를 연원으로 하여, 고려말에 발생한 독자적인 시가형태로 보고 있는데, 그에 대한 근거로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려속요인 <滿殿春別詞>의 餘音句를 제외하면, 그 형태의 3장 6단 구조와 사설시조의 3장 6구절의 의미구조가 일치한다는 점, 둘째, 만전춘별사·쌍화점·처용가 등의 내용상 외설성이 사설시조 내용의 한 특성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 셋째, 前記한 속요와 사설시조의 진술 방법이 다 같이 대화의 담화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 넷째, 이야기 노래라는 類似性을 띠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상 사설시조의 연원에 관한 두 가지의 입장을 살펴 보았는데, 선행 연구를 종합해 본 결과 사설시조가 평시조에서 파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평시조와 사설시조와의 관련성이 매우 많기 때문이다. 앞의 형태에 관한 문제에서 여러 학자들이 밝혔듯, 사설시조는 그 문학적 형식이 초장·중장·종장으로 이루어지는 3장의 형식적 틀을 결코 벗어나지를 않는다. 아무리 길이가 늘어나더라도, 그 늘어남은 3장의 형식적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또한 사설시조는 음악적 형식에서도 평시조와 공통된 형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악곡의 형식에서 가곡창의 경우는 평시조이든 사설시조이든 어느 쪽이나 모두 5장의 형식을 취하고, 시조창의 경우 또한 모두가 3장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장단의 형식도 평시조와 사설시조는 다르지 않고, 공동의 향유 기반 위에서 연창되는 동일한 계통의 성악곡이라는 것 역시 이를 뒷받침해준다.⁴²⁾

그렇다면 교과서에서는 사설시조의 개념 및 발생에 관한 내용이 어떻게 제시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41) 김제현, 『사설시조 문학론』, 새문사, 1997, 48쪽.

42) 성기옥 외, 『고전시가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06, 303~306쪽을 참고하였음.

- 조선 영·정조(英正祖) 때 서민 정신을 대표하는 문학 양식으로 발달한 시조. ‘장형 시조(長型時調)’라고도 불린다. 사설시조에는 가사투와 민요풍이 혼합되어 있다. 사설이 한없이 연장되어 설화식으로 길어졌으며, 새로운 중장 첫 구의 개척 등이 돋보인다. (생략) 형식은 평시조가 지닌 3장체(三章體)의 형식을 그대로 따르되 6구 중 2구 이상이 10자 이상으로 길어지고, 대개 중장을 길게 늘려 변화를 시도하였다.[금성]
- 임·병 양란 후 서민 의식이 성장하고, 실학 사상이 대두하였다. 이 시기에 문학은 운문 중심의 문학에서 산문 중심의 문학으로 전환하였는데,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더욱 발전한 것이 사설시조이다. (생략) 형식면에서는 평시조의 3장체를 그대로 따르되, 초장이나 중장 혹은 그 중 일부가 4음보의 율격에서 현저하게 이탈하여 장형화된다. [중앙]
- 평시조보다 초·중장이 제한 없이 길고 중장도 어느 정도 길어진 시조. 사설시조라고도 하는 장형시조이다. [청문각]
- 평시조의 형식에서 조금 벗어나 중장의 제 1구를 제외한 어느 1구가 길어지면 엇시조라 하는 것이 관례이며, 변형의 정도가 더욱 심해져 두 구 이상이 길어지면 사설시조로 친다. 길이가 길기에 장시조(長時調)라고도 하며 평시조의 형식을 파괴했다고 해서 파형 시조(破型時調)라고도 한다. 사설시조는 민요의 자유로운 형식과 그 속에 나타나는 생활 감정을 긍정적으로 계승하고, 평시조의 짜임새와 격조를 부정적으로 계승했다고 볼 수 있다. [형설]
- 사설시조는 2장 이상의 구절 수가 매우 길어지는 시조로서 장형 시조라고도 한다. [천재]

이상의 내용들을 보면 교과서에서는 사설시조를 주로 평시조에서 파생된

것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형태면에서 구체적인 표현은 조금씩 다르나, 대체적으로 ‘평시조에 비해 장형화되었다’는 것을 사설시조의 개념으로 제시하고 있다. 사설시조의 명칭에 관해서 금성에서는 ‘장형 시조’라는 명칭을 언급하였고, 청문각에서는 ‘사설시조’라는 명칭을 언급하였다. 형설에서는 평시조의 형식과의 비교를 언급하며 ‘과형시조’라는 명칭을 언급하였고, 천재에서는 ‘장형시조’라는 명칭을 언급하였다. 대체적으로 교과서의 설명이 명칭, 형태, 연원에 대한 학계의 논의에서 크게 벗어난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몇 가지의 문제점도 있다. 금성에서는 ‘조선 영·정조(英正祖) 때 서민 정신을 대표하는 문학 양식으로’라는 설명을 하고 있다. 발생에 대해서 ‘고려 후기 발생설’, ‘조선 전기 발생설’, ‘선조·명조대 발생설’, ‘조선 후기 발생설’등이 있는데, 초기 사대부 계층의 사설시조 작품 연대를 보아 정확하게 정의할 수는 없으나, 조선 후기에 발생했다는 견해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즉 사설시조가 조선 후기에 와서 더욱 활발하게 창작되는 것은 맞지만, 그 이전 시기에도 분명 사설시조가 창작되고 연행되었다. 따라서 ‘조선 후기 때~’와 같은 언급은 학습자들에게 혼란을 줄 여지가 있으므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서민 정신을 대표하는 문학 양식’이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 역시 학습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 사설시조가 오직 서민 정신만을 다룬 작품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⁴³⁾ 중앙에서는 ‘시조 임·병 양란 후 서민 의식이 성장하고, 실학 사상이 대두하였다. 이 시기에 문학은 운문 중심의 문학에서 산문 중심의 문학으로 전환하였는데,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더욱 발전한 것이 사설시조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 역시 조선 후기에 사설시조가 발생하였다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정확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필자는 위에서 언급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다음과 같이 사설시조의 개념을 정리해 보았다.

43) 이에 대해서는 ‘(3) 사설시조의 내용에 관한 문제’에서 더 자세히 언급하고자 한다.

- ‘사설시조’ : 조선 후기에 이르러 가장 성행했던 시조. 평시조의 3장체를 그대로 따르되, 대개 중장이 길어진 시조이며, ‘장시조, 장형시조’라고도 불린다.

2) 사설시조의 작자층에 관한 문제

사설시조 담당층의 문제는 단순히 어느 계층의 문제를 넘어 미의식과도 관련되어 중요하다. 중인층으로 보느냐, 양반계층으로 보느냐에 따라 사설시조의 미적 기반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설시조의 담당층을 보는 관점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평민층으로 보는 견해, 둘째는 사대부층으로 보는 견해, 셋째는 중인층으로 보는 견해이다.

사설시조의 연구 초창기에는 평민 계층 작가를 주장하는 견해⁴⁴⁾가 주류를 이루었다. 즉, 사설시조는 서민의 문학이었고, 따라서 사설시조의 성격은 서민적이고 탈중세적이라고 규정되었다. 사설시조가 서민 문학적 성격을 나타낸다고 주장하는 論者들은, 실학 사상의 영향 아래 지배계급에 대한 반동으로 平民歌客 및 일군의 비판적이며 진취적인 유학도들이 평시조를 부정하고 이에 대한 장르로서 저항적 성격의 사설시조를 이룩했다고 본다.⁴⁵⁾ 이 견해는 주로 무명씨의 사설시조의 작품들 중 비속하고 노골적이며, 일상어를 사용하는 사설시조가 많음을 들어, 평민층의 의식이 시에 투영되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설시조 작품 중에는 서민적이며 저항적인 작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대부의 미의식과도 부합되는 작품들도 많이 있으므로 합

44)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대표적인 논자들은 다음과 같다.

김동준, 『보정 시조문학론』, 우성문화사, 1981.

구자균, 『한국평민문학사』, 민족문화사, 1982.

이능우, 『고시가논고』, 숙명여대 출판부, 1983.

이태극, 『시조의 사적 연구』, 이우 출판사, 1981. 등.

45) 이은혜, 「사설시조의 사대부 문학적 성격」,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4, 6 쪽.

당한 논의는 아니라고 여겨진다. 또한 이름을 남기고 있는 사설시조 작가의 분포를 통해 볼 때 평민 출신이라 여겨지는 가객은 찾아볼 수 없으며, 대부분의 記名 작가들은 사대부나 중인출신으로 밝혀지고 있으므로 평민층의 작가로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렇게 사설시조가 평민층의 문학이라는 견해가 의심되면서, 사대부 계층을 사설시조의 주된 담당층으로 보는 견해가 등장하게 되었다.⁴⁶⁾ 사설시조의 주 작자층을 사대부 계층으로 보는 견해로 김학성⁴⁷⁾의 논의를 살펴 볼 수 있다. 김학성은 사설시조가 평시조의 등장과 동시에 악곡과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견해로, 사설시조를 주도한 담당층을 사대부로 보는 것이다. 이 견해는 사설시조의 발생을 고려 말엽까지 소급시키고 있으며 사대부 외의 계층이 담당층으로 유입된 18세기 이후에도 사설시조의 창작과 향유에 관여한 계층은 중서가객층에 한정될 뿐 그 밖의 계급이 개입한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중서가객층의 활약도 근본적으로는 양반사대부나 왕실의 후원으로 그들의 취미나 기호에 부응해야했기 때문에 그들 고유의 계급적 기반과 세계관을 사설시조에 수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 또한 많은 격식의 파괴를 보이고 있는 사설시조라 할지라도 그 속에는 중국의 고사나 어려운 한문투의 표현을 통해 양반사대부가 주층을 이루었음을 알 수 있다. 시조의 형식이 무너지면서 사대부 지배계층의 평시조에서 사설시조로 파생되었다는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사설시조의 주 작자층을 중인계층으로 보는 견해로 고미숙⁴⁸⁾의 견해를 살펴 볼 수 있다.⁴⁹⁾ 먼저 사설시조의 형성 초기를 제외하고는 사

46)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대표적인 논자들은 다음과 같다.

김대행, 『시조유형론』, 이화여대 출판부, 1986.

장사훈, 『시조음악론』, 서울대 출판부, 1986.

김학성, 「사설시조의 담당층 연구」, 『성균어문연구』 29집, 1993. 등.

47) 김학성, 「사설시조의 담당층」, 『한국 고시가의 거시적 탐구』, 집문당, 1997.

48) 고미숙, 「사설시조의 역사적 성격과 그 계급적 기반 분석」, 『어문논집』 30, 1991, 67쪽.

49) 이 외에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대표적인 논자들은 다음과 같다.

강명관, 「사설시조의 창작향유층에 대하여」, 『민족문화사연구』 제4호, 1993.

설시조의 알려진 작자층의 주류가 중인, 서리 출신의 가객들이라는 것이다. 즉, 김수장을 비롯하여 박문육, 김문수, 김태석 등 노가재가단의 가객들과 19세기의 안민영은 사설시조의 대표적인 작가들이다. 또한, “蔓橫淸”이라는 명칭하에 사설시조를 최초로 채집, 수록한 김천택을 비롯하여 김수장, 안민영 등의 가집편찬자들은 사설시조를 보존, 전승하는데 중대한 기여를 했고, 이세춘, 송실술 등 ‘古今唱歌諸氏’에 기록된 18세기의 여러 가객들 또한 사설시조의 성행의 주역들이었다. 마지막으로 사설시조의 창작, 가창, 전승을 위한 예술 활동에 결정적으로 요청되는 것은 바로 물질적 기반이므로, 사설시조의 작가는 생활상의 여유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중인가객들은 임·병란 양란 이후 사회적 변화의 물결과 그들 지위의 특권을 이용하여 어느 정도의 부를 축적하게 된다. 하지만 중인계층의 부의 축적은 봉건체제의 제도적 모순을 이용한 것이지 확대 재생산을 위한 자본으로서의 가치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중인계층의 부가 향락적인 유흥업에 쓰이게 된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이들은 직업의 특성상 상당한 정도의 지식을 습득하고, 전문적인 교육을 받았으며, 사대부들의 생활을 동경하고 있었기에 시사를 조직하여 한시와 그림, 글씨를 즐겼던 것이다. 즉 조선후기 도시와 상공업의 발달로 인한 중인가객들의 경제적 성장은 그들의 부를 유흥과 문화, 예술에 소비하게 만들었고, 사설시조의 주작가층으로 활동하게 만들었던 것이다.⁵⁰⁾

이상 사설시조의 작자층에 대한 세 가지 견해를 간단하게 살펴 보았다. 위의 견해들을 종합하여 필자의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사설시조의 작자층이 평민층이라는 견해에 대해서, 사설시조는 서민적인 미의식을 가지고 있다고는 할 수 있으나, 이를 두고 평민층의 작자층이 주도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본다. 오히려 사설시조가 평시조의 등장과 동시에 악곡과

김종환, 「사설시조 작가 신분의 사적 연구」, 『3사교 논문집』 39집, 1994. 등.
50) 박민아, 「사설시조 작가 의식 연구」, 서강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4.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것을 통해 초기에는 사대부 계층이 주도적으로 사설시조를 향유했으나, 점차 조선 후기로 오면서 중인 계층으로 그 주도층이 변화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교과서에 작자층에 대해 어떻게 언급되고 있는 지 살펴 보도록 하겠다.

- 사설시조 조선 후기에 주로 중인(中人), 시조 작가, 부녀자, 기생, 상인 등 서민들과 몰락한 양반이 부른 장형 시조이다. [교학사 (김)]
- 정형화된 시조의 작자들인 지배 계층에 반하여 평민층의 작자가 가세하여 일구어 낸 일종의 변형 시조이다. [금성]
- 조선 후기의 산문 정신과 서민 의식의 각성은 새로운 형식의 사설시조를 만들어 냈다. 이에 따라 여러 계층의 작가들은 형식의 구애에서 벗어나 진솔한 애정, 양반 사회에 대한 비판, 서민 생활의 애환 등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두산]
- 사설시조는 서민과 가까운 문학이라 할 수 있으며……. [중앙]
- 사설시조는 비판적 지성을 갖춘 사대부 계층에 의해 출발되고 가객에 의해 완성된 시가 형태인데……. [청문각]

위에 제시된 교과서의 내용을 살펴 보면, 먼저 교학사(김) 경우, 사설시조의 작자층을 다양한 계층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부녀자’라는 견해는 신뢰할 수 없다. 시조를 창작하는 작자로 부녀자라는 견해는 없기 때문이다. 다만 여성층 중에서도 기녀층은 시조의 향유층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기녀가 창작한 것도 역시 남성들과 함께 향유하기 위해서였다.⁵¹⁾ 따라

서 사설시조를 포함한 시조 문학은 남성들의 문학이므로 ‘부녀자’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못하다. 또한 앞서 언급한 것처럼, ‘조선 후기에’라는 설명도 역시, 사설시조의 발생적 측면에서 학습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금성과 같은 경우는 평민층의 작자를 사설시조의 주작자층으로 보고 있다. 이는 앞의 논의에 비추어 봤을 때, 중인층으로 보고 있는 견해와 사대부층으로 보고 있는 견해를 수용하지 못한 것이다. 일부에서는 평민층에 대해서 중인층을 포함한 개념으로 보기도 하는데⁵²⁾, 만약 그렇다 할지라도 초기 작품들을 많이 남겼던 사대부층에 대한 견해는 없으므로, 문제점이 있다.

두산의 경우 작자층에 대해 ‘여러 계층의 작가들은~’ 이라고 언급하여 포괄적으로 제시하였는데, 이 견해가 오히려 학계의 논의를 반영한 정의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두산도 역시 ‘조선 후기의 산문 정신과 서민 의식의 각성은 새로운 형식의 사설시조를 만들어 냈다.’로 언급하여 조선 후기에 사설시조가 발생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

중양은 서민과 가까운 문학이라고만 제시하여, 다른 견해는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청문각의 경우, 평민층을 제외하고 사대부와 가객인 중인층을 작자층으로 제시하여, 현재까지 진행된 학계의 논의를 가장 잘 반영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비판적 지성을 갖춘 사대부층~’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비판적 지성을 갖췄다는 것은 사설시조가 현실 비판적 성격을 가진 문학이라는 의미를 말해주는데, 사설시조의 전체 주제를 보았을 때, 현실 비판적인 내용을 일부일 뿐이기 때문에 이러한 언급은 수정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51) 성기옥 외, 『고전시가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06, 307쪽을 참고하였음.

52) 평민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김학성(김학성, 「조선후기 시가에 나타난 서민적 의식」, 『국문학의 탐구』, 성대 대동문화연구원, 1986.)은 “시대를 초월하여 소수의 특권층에 지배받는 다수의 백성층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았는데, 이에 대해 고미숙(고미숙, 「사설시조의 역사적 성격과 그 계급적 기반 분석」, 『어문논집』 30, 1991.)은 평민이라는 개념이 매우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비판하였다.

이상에서 필자가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을 종합하여, 사설시조 작자층에 대한 설명을 정의하면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 사설시조는 사대부 계층에 의해 출발하였고, 조선 후기에 이르러 중인층에 의해 더욱 완성된 시가 형태로, 서민적 정서를 풍부하게 수용하였다.

3) 사설시조의 내용에 관한 문제

사설시조가 다루고 있는 내용 혹은 주제 등은 외설적인 것에서부터 유교적 덕목을 강조한 것에 이르기까지 기실 전 계층을 수용할 수 있는 폭을 지니고 있다.⁵³⁾ 서원섭은 사설시조의 주제를 25개의 항목으로 나누어 그 빈도수를 조사하여 제시하였다.⁵⁴⁾ 그 결과 중에 빈도수가 많은 주제를 사대부적인 정서와 서민적인 정서로 살펴 볼 수 있다. ‘空閨怨慕’의 경우는 사대부적 정서도 될 수 있고 서민적 정서도 될 수 있다. 또, 이와 비슷한 주제인 ‘戀募相思’ 역시 사대부적인 정서도 될 수 있고 서민적인 정서도 될 수 있다. 그러나 ‘田家閒居’와 ‘追慕讚頌’, ‘古事懷古’경우 사대부적인 정서만 해당된다. ‘逍遙遊覽’ ‘好色貧花’의 경우는 서민적인 정서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유희와 유흥은 전 계층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사대부적 정서에도 해당

53) 조규익, 『만황청류』, 박이정, 1996, 41쪽.

54) 서원섭이 분류한 사설시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서원섭, 『시조문학연구』, 형설출판사, 1977, 297쪽.)

離別哀喪(8)	空閨怨慕(14)	田家閒居(16)	致仕歸田(1)
安貧樂道(3)	感激君恩(1)	憂國慨世(1)	追慕讚頌(16)
教誨警戒(3)	逍遙遊覽(12)	飲酒醉樂(8)	人生行樂(9)
人生無常(5)	白髮嗟歎(4)	感物叙景(19)	丈夫豪氣(4)
聖世逸民(3)	尋訪招待(3)	戀募相思(25)	好色貧花(23)
寄託諷喻(5)	福數頌祝(6)	古事懷古(20)	思鄉歸心(1)
懷抱述義(40)			

되고, 서민적인 정서에도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서원섭의 분류를 통해 사설시조의 주제 의식이 반드시 서민적 정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대부적 정서가 많은 비율을 차지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고미숙은 사설시조가 상당히 다양하고 이질적인 내용들이 공존한다고 하면서 몇 개의 주제로 사설시조를 분류하였는데, 사랑·성 79수, 중세의 관념·송축 103수, 풍류 80수, 취락·염세 46수, 현실비판·세태묘사 52수, 기타 48수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⁵⁵⁾ 고미숙의 분류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중세의 관념과 송축’이다. 즉, 사설시조는 기존의 관습화된 논의처럼 서민적인 내용만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질적인 내용들이 공존하는 폭넓은 내용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교과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적 특징을 살펴 보자.

- 내용은 주변 생활이 중심이 된 재담, 욕설, 음담, 애욕 등을 서슴없이 대담하게 묘사하였고, 형식 또한 민요, 가사, 대화 등을 섞어서 불렀다. [교학사 (김)]
- 내용은 주로 민요나 가사, 대화 등이 섞여 있는데, 남녀 간의 애정 문제, 탐관오리의 수탈상, 상거래(商去來) 등 구체적이며 일상적인 주제를 풍자적이고 해학적으로 표현하였다. 때로는 여과없는 비속어를 사용하여 지배계층에 대한 불만과 남녀 간의 애정 문제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하였다. [금성]
- 내용면에서는 실생활과 관련된 것을 제재로 하여 당시 사회에 대한 반발과 남녀 간의 애정 문제 등을 대담하게 드러낸다.[중앙]

55) 고미숙, 「사설시조의 역사적 성격과 그 계급적 기반분석」, 『어문논집』 30집, 1991, 46쪽.

- 종래의 시조에서 기피하던 비속하고 추한 대상도 과감하게 시적 소재로 삼았다. 그리고 대담한 비유와 함께 욕설, 말장난, 재담 등이 시어로 활용되어 풍자와 해학의 세계, 곧 희극미를 구현하였다. [청문각]
- 사설 시조는 생활과 밀착된 현실 감각을 담음으로써 관념적인 것보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내용으로 하며, 평민성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지난날의 영탄이나 서정의 경지를 완전히 탈피하여 폭로적인 묘사와 상징적인 암유로써 애정, 거래, 수탈, 패륜, 육감 등 다채로운 소재와 주제를 다루었다. 사설 시조는 현실의 모순에 대한 날카로운 반어, 중세적 고정 관념을 거리낌 없이 추락시키는 풍자, 고달픈 생활에 대한 해학 등이 주 내용을 이루며 해학미를 구사하고 있다. [형설]

교과서에서 언급한 내용에 대한 특징을 살펴 보면, 주로 현실 비판과 세태 묘사, 애정 문제와 관련된 내용을 사설시조의 내용적 특징으로 언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교학사(김)에서 ‘주변 생활이 중심이 된 재담, 욕설, 음담, 애욕’, 금성에서 ‘일상적인 주제, 남녀간의 애정 문제’, 중앙의 ‘실생활과 관련된 것, 당시 사회에 대한 반발, 남녀 간의 문제’, 청문각의 ‘욕설, 말장난, 재담’ 등이 바로 그것이다. 더구나 형설의 경우, ‘평민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사설시조가 현실 비판과 세태 묘사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와 이질적인 다양한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한 앞서 살펴 본 것처럼 모든 작품이 ‘평민성’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평민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 또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가 생겨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사설시조의 특징을 평시조와의 ‘차이’에서만 찾으려 했기 때문이다. 즉, 평시조를 중세적 사고에 기반을 두고 형성된 장르로 규정함으로써 사설시조를 ‘탈중세적’인 장르로 만들려는

의도가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 사설시조 중에서 평시조와 ‘다른’ 성향을 가진 작품들만 부각되고, ‘유사한’ 성향을 가진 작품들은 제외되어왔던 것이다.⁵⁶⁾

학습자들은 이와 같은 내용을 보고, 사설시조의 다양한 주제 의식이 있음을 알 수 없다. 따라서 사설시조의 장르적 정체성을 올바르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체 작품을 대상으로 한 균형 있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본다. 사설시조의 내용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볼 수 있다.

- 사설시조는 중세의 관념 · 송축, 현실 비판, 세태 묘사, 애정문제, 풍류 등 다양하고 폭넓은 주제 의식을 가지고 있다. 이 중에서도 평시조와 대비되는 내용으로는 현실 비판, 세태 묘사, 애정이 두드러진다.

56) 이수곤, 「사설시조의 통속문학적 성격 연구」, 서강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 논문, 2005, 36쪽.

Ⅲ. 다양한 텍스트를 활용한 사설시조 교육의 대안

Ⅱ장에서는 『문학』 교과서의 분석을 통해, 현행 사설시조 교육 양상과 문제점들을 짚어 보았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무엇보다 ‘텍스트’의 보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텍스트의 선정이 학습 내용에 가장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일차적으로는 교과서 개발자들의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이차적으로 교사의 노력이 필요하다. 교사는 Ⅱ장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현행 사설시조 교육의 문제점들을 알고, 이에 대해 개선 및 보충하여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기존의 교육과정은 교과목 중심으로 교과서가 절대적인 준거가 되었으나, 7차에 오면서 교육 과정 중심으로 변화됨에 따라 교과서는 교사가 제공하는 교수 자료 및 매체의 한 부분일 뿐 절대적인 준거는 아니다. 따라서 교사는 교과서를 절대적으로 의존하기 보다는 스스로 교수 자료 및 매체를 개발하여 학습자들에게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이 장에서는 교과서 밖의 텍스트를 통해 현행 사설시조 교육의 문제점을 보완해 보고자 한다. 특히 Ⅱ장에서 분석해 본 결과 ‘작품 선정의 균형성’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 중에서도 ‘작자층의 균형성’과 ‘주제의 균형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먼저 1장에서는 유명씨 작품들을 통해 ‘작자층의 균형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한다. 사설시조 작품 중에서는 무명씨의 작품 외에도 유명씨의 작품이 엄연히 존재한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학교 교육에서는 이를 간과하고 있다. 작자층의 문제는 단순히 어느 계층의 문제를 넘어 미의식과도 관련되어 중요하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유명씨의 작품 일부를 선별·분석하여, 사설시조 교육의 작자 편향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한다.

2장에서는 무명씨 작품들을 통해 ‘주제의 균형성’에 대한 대안을 찾아보고

자 한다. 기존의 학교 교육은 사설시조의 주제가 이질적이고 폭넓은 주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탈중세적인 내용에만 초점을 맞춰 텍스트를 선정하고 있었다. 이는 결국 학습자들에게 사설시조의 주제 의식을 올바르게 설명해 주지 못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그렇다고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들이 문학성이 떨어지거나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교과서 작품을 수용하되, 교과서에서 다루지 않은 주제 의식이 드러난 작품을 제시하여, 주제의 편향성에 대한 문제를 보완해 보고자 한다.

Ⅲ장에서 인용된 작품들은 황충기의 『주해 장시조』(국학자료원, 2000)와 김홍규의 『한국고전문학전집』 2(고대민족문화연구소, 1993.)에 수록된 작품들을 인용하여 사용하였다.⁵⁷⁾

1. 사설시조 작자층 관련 제안

김종열에 의하면 사설시조의 유명 작가의 수는 사대부 계층 작가의 작품이 41수이고, 중인 작가의 작품이 64수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⁵⁸⁾ 이것은 전체 사설시조의 작품 수가 480여수라고 볼 때, 20% 정도에 불과한 것이지만 이를 통해 각 계층의 다른 사설시조 미의식도 살펴 볼 수 있고, 더 나아가 무명씨 작품의 미의식도 추정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김종열이 제시한 사대부 계층 작가와 중인 계층 작가는 다음과 같다.⁵⁹⁾

57) 이후에는 각주를 통해 원전의 출처를 표기하고, 괄호를 통해 필자가 인용한 수록집과 수록집의 번호를 표기하고자 한다. 예) 『청구영언』(주해 장시조, 1)

58) 김종열, 「사설시조의 작가 의식 연구」, 강원대 박사학위 논문, 2005, 54쪽.

59) 김종열, 위의 논문, 157쪽.

<사대부 작가>

작가명	자	호	생몰연대	신분 및 관직	시조/사설시조 작품 수
고용척	숙명	사곡	1531~1605(중종~선조)	학자, 성균사성. 종이품	28 / 5
정 철	계함	송강	1526~1593(중종~선조)	문신, 예조판서. 정일품	108 / 2
강복중	제기	청계	1563~1639(명종~선조)	참봉, 명문후 종구품	64 / 3
백수희	여빈	송담	1574~1642(선조~인조)	자여도찰방 호조 참의	3 / 2
채유후	백창	호주	1599~1660(선조~현종)	문신, 대제학판서 정일품	1 / 1
이정보	사수	삼주	1693~1766(숙종~현종)	문신, 대제학예찬 정일품	106 / 14
박명원	회보	만보정	1725~1790(영조~정조)	금성위, 수록대부 정일품	1 / 1
황윤석	영수	이재	1729~1791(영조~정조)	어학자, 현감 종사품	28 / 1
신헌조	여가	죽취당	1752~1807(영조~순조)	관찰사, 목사 정일품	25 / 8
김 영	경명		정조조	대장, 무관	1
익 중	덕인	경헌	1809~1830(순조~익종)	현종의 부	9 / 1
김민순	신여	매월송풍	순조조	현감. 종육품	15 / 2
이정신	집중	백매옹	영조조	현감. 종육품	15 / 1
김춘택	백우	북헌	1670~1717(순종~영조)		2

<중인 작가>

작가명	자	호	생몰연대	신분 및 관직	시조/사설시조 작품 수
박문옥	여대		숙종, 영조	서리, 객	18 / 9
김태석	덕이		숙종, 영조	객	8 / 2
권덕중	흠진		영조	객	1 / 1
김목수	시경		영조	서리, 객	8 / 2
오격화	자형	섬수	영조	객	3 / 1
임의직	백정		고종	명금	6 / 1
안민영	성무	주용	1816~?(고종)	객	187 / 17
김수장	자평	노가재	1690~?(숙종)	객, 기성서리	123 / 31

위의 도표를 살펴보면, 사대부 계층은 모두 14명의 작가가, 중인 계층은 8명의 작가가 사설시조 작품을 남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사대부 계층은 왕에서부터 무관까지 비교적 폭넓은 작가층을 형성하고 있는 반면, 중인 계층은 주로 객의 역할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한편 8명의 중인 계층 작가들이 14명의 양반 계층보다 더 많은 작품을 남기고 있는 것도 특징적인데, 이것은 안민영과 김수장이 많은 수의 작품을 남김으로 인한 것이다. 김수장과 안민영의 경우는 시조집의 편찬자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이 과정에서 자신들의 작품을 많이 수록하여, 많은 작품들이 전승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⁶⁰⁾

한편 II장에서 지적했듯이 현재 18종 『문학』 교과서에는 유명씨의 작품 중 단 세 작품만 수록하고 있다. 그런데 그나마 수록되어 있는 세 작품 모두 본문학습 자료로 제시한 것이 아니어서 사실상 유명씨의 작품은 학교 교육에서 소홀히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학습자들은 유명씨의 작품에 대해서는 학습할 기회가 없는 실정이다.

사대부 작자층과 중인 작자층의 작품에는 고정된 의식 세계만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이질적이고 상반된 의식 세계를 보여 준다. 따라서 이와 같은 작품들을 통해 학습자들은 한 계층이 고정된 의식 세계를 표출하는 것이 아

60) 이것은 사설시조의 작품 뿐만 아니라 시조 전체 작품의 수를 통해서 더 명백히 확인된다.

나라는 것을 학습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먼저 사대부 작자층과 중인 작자층 텍스트를 살펴 보고 이를 활용한 학습 자료를 제시해 보도록 하겠다.

1) 교과서 밖 사대부 작자층의 사설시조 텍스트

먼저 이 장에서는 사대부 작자층의 사설시조 텍스트를 선별하여 두 가지의 기준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첫 번째는 사대부적 정서의 사설시조이다. 여기에서는 평시조에서 보여줬던 사대부들의 미의식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작품들을 소개하도록 하겠다. 두 번째는 이와 다른 서민적 정서 및 생활을 반영한 사설시조 텍스트를 소개하고자 한다. 여기에 속하는 작품들은 기존에 보여주었던 사대부적 시정신과는 다른 서민적 정서 및 생활을 반영한 작품들이다. 서민적 정서 및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당대의 서민들의 사실적 정서 및 생활이 아니라, 일상적 소재를 통해 나타낼 수 있는 사대부와는 다른 정서 및 생활의 반영을 뜻한다. 이와 같은 시들을 통해 사대부들의 상반된 작품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 먼저 사대부적 정서의 사설시조를 살펴 보도록 하겠다.

가. 사대부적 정서 표출의 사설시조

조선조는 유교적 덕목을 중시한 유교 국가이다. 특히 사대부들에게 중시된 유교 이념은 충과孝이다. 이러한 관념은 사설시조 작품에서도 표출되고 있다.

忠孝도 니 못흐고 비록이 주글센들

暮夜明月의 杜鵑의 녀시 되어 平生의 爲君父 怨恨을 梨花一枝에 春帶雨 |
되어시니

行人도 너 뜻을 아라 駐馬愁를 흐는다. -강복중61)

(【날말 풀이】 春帶雨 : 봄빛을 머금은 비 / 駐馬愁 : 가던 말을 멈추고 근심을 함)

이 시조는 강복중의 시로 忠과 孝의 정서가 잘 표출되어 있다. 忠孝를 다 못하고 죽는다면 비가 되어서라도 그 뜻을 전하겠다는 내용이다. 또한 행인이 그 뜻을 알아서 가던 길을 멈추고 근심한다는 종장을 통해 화자의 간절함이 한층 강조된다. 생전에 다 못한 ‘충·효’를 죽어서나마 이루겠다는 이 정서는 사대부 계층에게는 생활화된 덕목으로, 다른 사대부의 문학 작품에서도 많이 접할 수 있었던 보편적 정서이다. 따라서 이 시를 배우는 학습자들은 이와 같은 시를 통해 사설시조에서도 사대부 계층의 보편적 정서가 표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송축’을 표출한 작품도 볼 수 있었다. 다음 시를 살펴 보자.

孔門弟子 七十人이 春風杏壇에 좌우로 버러시니

三月 不違仁退而如愚는 顏淵의 어딜미오 吾道一以貫 忠恕而已는 曾參의 篤學이오 雍也는 可使南面이여 求也는 可使爲相이라 子路는 好勇호니 千乘의 治賦호고 子貢은 明敏호니 瑚璉의 그릇시오 舞雩에 抃람호고 沂水에 沐浴호야 千仞絶壁에 鳳凰이 느라움은 曾點의 氣象이라.

아마도 誨人不倦호고 作育英才호는 萬古之樂은 夫子이신가 호노라. -신현조62)

(【날말 풀이】 孔門弟子 七十人 : 공자 문하(門下)의 제자 칠십인 / 春風杏壇 : 공자가 제자를 가르치는 곳에 봄바람이 불음 / 어딜미오 : 어질음이오 / 瑚璉 : 제사에 쓰이는 제기로 다른 사람의 존경을 받을 만한 인격을 갖춘 사람을 말함)

이 시조는 신현조의 시로 공자의 덕을 송축하고 있다. 신현조는 정조 13

61) 『清溪歌詞』 (주해 장시조, 717)

62) 『蓬萊樂府』 (주해 장시조, 64)

년에 문과에 장원급제하여 강원도 관찰사까지 지낸 당시 지배 계층의 일원이었다. 이 작품에서는 공자의 제자들인 ‘자로, 자공, 중점’ 등의 학문과 기상을 칭송하며 기리고 있다. 종장에 ‘誨人不倦하고 作育英才하고’ 것이 가장 즐거운 일이라고 읊은 것은 맹자가 말한 ‘군자삼락’ 중의 세 번째인 ‘천하의 영재를 얻어 그를 교육한다(得天下英才 以教育之)’를 말한 것이다. 이는 공자의 제자들이 보여준 덕행을 따르겠다는 마음의 각오를 드러낸 것이다.⁶³⁾ 이와 같이 사대부로서 존경할 만한 대상을 송축하는 것은 사대부들의 고정화된 정서라 할 수 있다.

碧挑花를 손에 들고 白玉盞에 술을 부어

우리 聖母 7계 비는 말씀 더 碧桃와 갓트쇼서 三千年에 꽃이 피고 三千年에 열매 맺저 곳도 無盡 열미도 無盡 無盡 無盡藏 春色이라

아마도 요지왕모 千千壽를 聖母 7계 드리고져 ㅎ노라. -익중⁶⁴⁾

(【날말 풀이】 碧挑花 : 벽도화나무의 꽃 / 春色 : 온화하고 화사한 기운 / 瑤池聖母 : 서왕모(西王母))

위의 시조는 익중의 작품이다. <碧挑花를 손에 들고~>는 익중이 모후인 순원왕후의 탄신일에 지어 올린 것이라고 한다. 삼천년 만에 꽃이 피고 삼천년 만에 열매가 맺는다는 벽화를 진상하며, 장수를 기원·송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시를 통해 학습자들은 사대부들의 관습화된 미의식을 학습함과 동시에 사설시조가 임금에 의해서도 창작되었다는 사실을 학습할 수 있다.

이 외에도 태평성대나 선정에 대한 포부를 담은 사설시조도 있다. 먼저 태평성대를 고대하는 작품으로는 다음과 같은 작품이 있다.

63) 김종열, 앞의 논문, 59쪽.

64) 『國樂院本 歌曲源流』(주해 장시조, 290)

大丈夫 | 攻城身退 **호야** 林泉에 집을 짓고 萬卷書를 **박하**두고

종 **호여** **밧갈리**며 보라매 **질들이고** 千金駿駒 **알피** 미고 金樽에 술을 두고
絶代佳人 **갯티** 두고 碧梧桐 **검은고**에 南風詩 **놀리**하며 太平烟月에 **醉호여**
누엇신이

암아도 平生 **하울** 일은 **잇분인**가 **호노라**. -이정보65)

(【날말 풀이】 攻城身退 : 공을 이루고 벼슬에서 물러남 / 萬卷書 : 많은 양의 장서(藏書)
/ 南風詩 : 순임금이 남훈전에서 지어 불렀다고 하는 시)

이 시조는 이정보의 작품이다. 이 시의 화자는 사대부로 벼슬에서 물러나
임천에 집을 짓고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다. 시 전체를 통해 벼슬에서 물러
난 사대부 생활상이 드러나고, 태평성대를 회구하는 의식이 표출되어 있음
을 알 수 있다. 이 시조를 통해 태평성대를 표출하는 사대부의 사설시조 작
품을 알 수 있다. 이 외에 이정보의 또 다른 작품에는 선정에 대한 시 정신
이 표출되고 있다.

人生天地 百年間에 富貴功名 總浮雲을

출하리 **다바**리고 龍門에 **壯遊호야** 齊州九點煙에 山河 元氣와 洞庭湖雲夢
澤을 胸襟에 **삼킨** 後에 落雁峰에 **긋쳐** 올라 謝朓의 驚人句를 青天에 朗吟
호고 張蹇의 八月槎를 銀河에 **흘리**노하 月宮에 **올라**가서 玉妃를 만나보고
그제야 蓬萊山에 安期生 羨門者와 長年度世術을 **슬크**장 議論하니

世上에 **醉死**夢生 **호야** 營營碌碌之輩야 **닐리** 무슨 **홀이오** -이정보66)

(【날말 풀이】 龍門 : 대망(大望)을 비유한 말. 중국 산서성 하진현과 섬서성 한현 사이에 있
는 황하가 급류. 고기가 이곳에 오르면 용이 된다고 함 / 雲夢澤 : 중국 형주(荊州)에 있는
웅덩이의 이름 / 玉妃 : 천상의 양귀비를 일컬음 / 羨問者 : 선문은 옛날 선인(仙人)의 이름
/ 營營碌碌之輩 : 세력이나 이익 같은 것을 얻기 위해 급급한 의젓하지 못한 무리)

65) 『周氏本 海東歌謠』 (주해 장시조, 179)

66) 『周氏本 海東歌謠』 (주해 장시조, 560)

이 시조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부귀와 공명을 뜯구름처럼 버리고 자연에 몸을 맡겨 세상을 살겠다는 풍류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작품이다. 그러나 종장에서는 그러한 이유로 사대부로서의 도리를 못하고 있는 용렬한 무리들에게 돌리며 풍자하고 있다. 지배 계층의 도리를 다 못하면서 왜 그 자리에 앉아 있느냐는 비유이자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⁶⁷⁾ 이렇게 선정에 대한 정조는 사대부에서만 드러날 수 있는 표현이다.

이상으로 사대부의 정서를 담은 사설시조를 살펴 보았다. 유교적인 덕목, 송축, 태평성대, 선정은 모두 사대부들의 정서를 반영한 것으로 평시조의 사대부 정신과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살펴 본 텍스트를 학습자들에게 제시한다면 사설시조가 서민적인 정서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평시조에서 드러난 사대부 정신도 있음을 학습할 수 있다.

나. 서민적 정서 및 생활상 표출의 사설시조

사대부가 창작한 사설시조에는 위에서 살펴본 사대부적 정서와는 다른 작품들이 있다. 즉 그 당대의 지배계층이었던 사대부들의 생활이나 사상보다는 서민적 정서와 생활을 반영한 사설시조 작품들이 남아 있기도 하다.

현재 전해지는 사설시조 작품 중에는 애정과 관련된 작품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 중 사대부들의 작품들에서 볼 수 있었던 관념적인 애정시와는 달리 노골적이고 솔직하게 감정을 표출한 작품들이 있다. 사대부들도 역시 이와 같은 작품들은 남기고 있다. 신현조의 작품을 살펴 보도록 하겠다.

閹氏네 더위들 사시오 일은 더위 느즌 더위 여러 히포 목은 더위

五六月 伏더위에 情에 님 만나이셔 들 불근 平牀우회 촌촌 감겨 누엇다
가 무음일 히엿던디 五臟이 煩熱히여 구슬땀 들니면서 혈덕이는 그 더위와

67) 김종열, 앞의 논문, 61쪽.

冬至들 긴긴밤의 고은님 품의 들어 드스한 아롬목과 독거운 니블속에 두몸
이 혼몸되야 그리져리 하니 手足이 답답하고 목굼기 타올적의 윗목에 촌
숙눔을 벌덕벌덕 켜는 더위 閻氏네 사려거든 所見대로 사시옵소

장스야 네 더위 여럿뎡에 님 만난 두 더위는 뉘 아니 도화히리 늡의게 꼭
디 말고 브디 내게 꼭꼭시소. -신헌조⁶⁸⁾

(【날말 풀이】 疇포 : 두어 해/ 五臟이 煩熱하여 : 온 몸에 열이 나고 가슴이 답답하여)

이 시조에서는 남녀간의 사랑의 정서가 표출되고 있는데, 이를 ‘더위를 팔고 사는’ 세시풍속을 소재로 하여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또한 시의 화자가 변하고 있는 것도 특징적이다. 즉 초장과 중장의 시적 화자는 여러 종류의 더위를 파는 ‘장스’다. 이 화자는 중장에서 나열하고 있는 이런 저런 더위를 팔고자 한다. 그런데 중장에서는 그 더위를 사고자 하는 화자로 바뀌어 ‘님 만난 두 더위’를 사려고 한다. 아무리 고통스러운 더위라도 사고자 하는 이유는 그만큼 남녀간의 사랑을 누리고 싶다는 소망이 간절하기 때문일 것이다. 사대부의 평시조에서도 남녀간의 그리움이나 사랑을 표현한 작품은 있으나, 이 작품처럼 솔직한 애정표현을 한 작품은 보기 힘들었다. 이것은 사설시조에만 나타나는 사대부들의 독특한 미의식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생활고에 시달리는 서민들의 삶을 담은 사설시조도 있다. 김민순의 작품을 살펴 보도록 하자.

니 몸에 가진 病이 한 두 가지 아니로다

보아도 못 보는 눈 드리도 못 듣는 귀 마타도 못 맛는 코 말뭇흔는 입이
로다

잇다감 腰痛과 腹痛이며 眩氣 嘔痰 滯症은 別症인가 흐노라. -김민순⁶⁹⁾

68) 『蓬萊樂府』 (주해 장시조, 16)

(【날말 풀이】腰痛과 腹痛이며 : 허리가 아프고 배가 아픈 것이며 / 眩氣 嘔痰 滯症은 : 어지럽고 가래를 뱉고 소화가 안되는 증상은 / 別症 : 어떤 병에 딸려 생기는 다른 증상. 합병증)

<니 몸에 가진 病이~>에서 시적화자는 ‘눈’, ‘귀’, ‘코’, ‘입’, ‘허리’, ‘배’ 등의 모든 신체 부위에 병이 퍼져 있다. 이것은 사대부인 자신의 생활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어려운 고통을 겪는 서민들의 생활을 대변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육체적으로 병이 들어 아프지 않은 곳이 한군데도 없듯이 실제생활의 어려움은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음을 비유해 주고 있는 것이다.

서민 생활 속의 일상적 소재로 표현된 시조도 있었다. 다음 시를 살펴 보자.

少年 十五二十時에 하던 일이 어제론 듯

소꿈질 썬움질과 씨름 탁견 遊山하기 小骨 장기 投牋하기 저기치고 鳶날리기 酒肆靑樓 出入다가 스람치기 ㅎ기로드.

萬一에 八字 | 가 조하만정 身數가 험ㅎ던들 큰 일 날 번 ㅎ쾌라. -김민순70)

(【날말 풀이】 遊山하기 : 경치 좋은 산으로 놀러 다니기 / 小骨 : 골짜기의 한 가지 / 투전하기 : 놀음의 한 가지 / 酒肆靑樓 : 술집과 기생집)

이 시조는 김민순의 작품이다. 이 시조에서는 소꿈놀이, 뽕박질, 씨름, 제기차기, 연날리기 등 서민들이 하던 민속놀이가 등장한다. 이것은 민간에서 행해지던 여러 가지 민속 놀이로 사대부의 생활과는 거리가 있다. 또한 관념적 정서를 표출하는 사대부 시들과 달리 소박한 정조가 느껴져서 기존의

69) 『六堂本 靑丘永言』 (주해 장시조, 157)

70) 『六堂本 靑丘永言』 (주해 장시조, 374)

사대부들의 작품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작품을 학습하게 되면, 조상들의 민속 놀이도 엿볼 수 있다.

이상으로 서민적 정서 및 생활을 표출한 사설시조를 살펴 볼 수 있었다. 위의 사설시조의 작가들은 사대부 계층이면서도 솔직한 애정을 드러내거나, 생활고를 겪는 모습, 서민들이 생활 등은 표출하고 있었다. 이것은 그 신분이 사대부라 할 지라도 서민들이 가질 수 있는 시정신을 표출할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살펴본 텍스트를 학습자들에게 제시할 경우, 서민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작가의 신분을 피지배계급으로 한정할 수 없음을 알게 할 수 있다.

2) 교과서 밖 중인 작자층의 사설시조 텍스트

앞에서 살펴 본 것과 같이 중인층에서 사설시조를 창작한 계층은 대부분 ‘가객’이었다. 이들은 조선후기 도시와 상공업의 발달로 인해 부를 축적하였고, 이로 인해 유흥과 문화, 예술을 소비하는 계층으로 성장하였다. 이러한 중인 계층은 사대부 계층과 그 정서적 기반이 가까웠기 때문에 사대부적 정서를 지향한 작품들을 많이 남기고 있다. 반면 사대부 계층의 작품과 마찬가지로 서민적 정서나 생활을 표출한 사설시조 작품들도 남기고 있다. 먼저 사대부적 정서를 지향한 사설시조를 살펴 보고자 한다.

가. 사대부적 정서 표출의 사설시조

중인 계층의 사설시조에서도 사대부 계층에서 보였던 유교적 덕목을 표출한 작품들이 있었다. 이 중 ‘충’을 표현한 작품을 살펴 보자. 먼저 권덕중의 시조를 살펴 보도록 하겠다.

歷山에 밋ᄃ르실시 百姓이 다 ᄃ을 辭讓하고

漁雷澤ᄃ실시 人皆讓居ᄃ고 陶河濱ᄃ실시 그릇시 기우트지 아녜느니

天下의 朝覲 訟獄 謳歌者의 ㅅ르는 聖德을 일노 좃츠 알네라. -권덕중71)

(【날말 풀이】 歷山에 ᄃ르실시 : 순(舜)임금이 왕위에 오르기 이전에 역산에서 농사를 지으시니 / 漁雷澤ᄃ실시 : 순 임금이 너택에서 고기를 잡으시니 / 陶河濱ᄃ실시 : 순 임금이 하반에서 그릇을 구우시니 / 朝覲 訟獄 謳歌者 : 임금을 뵈 신하들. 조근은 신하가 임금을 뵈는 것. 송옥은 소송(訴訟)과 같음. 구가는 칭송하여 노래 부름)

이 시의 작가는 중인 작가이지만, 그의 시 정신은 사대부 문화와 가깝게 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歷山에 밋ᄃ르실시~>에서는 밋 같고 평안히 살 수 있는 것, 노래를 부르고 지낼 수 있는 것도 성덕이라고 노래하고 있다. 즉 이 시의 작가는 임금님의 덕을 기리는 사대부 계층의 이념인 ‘충’의 마음을 그리고 있다. 이와 같은 시 정신은 다음의 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孔夫子 | 사람이시로되 依然ᄃ 하늘이시라

義理를 풀어니여 五倫을 ㅅ르키시니 至愚ᄃ 民氓이 ㅅ르로서 어질거다 國太平 民安樂이 오로다 聖德이로다

千載後 이 ᄃ튼 大仁君子 | 또 업슬ᄃ ᄃ노라 -김수장72)

(【날말 풀이】 孔夫子 : 공자님을 높여서 부르는 말 / 至愚ᄃ 民氓 : 매우 어리석은 백성)

이 시조는 김수장의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 중장의 ‘國太平 民安樂이 오로다 聖德이로다’에서 보듯 이 시조 역시 성덕을 표현하고 있다. 사대부 작품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유교적 덕목이 중인 작자층의 작품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은 중인 계층이 사대부와 정서적 거리가 가까웠음을 알 수 있게 해

71) 『樂學拾零』 (주해 장시조, 485)

72) 『靑邱歌謠』 (주해 장시조, 65)

준다.

다음 작품들은 태평성대를 바라며 醉樂의 정서가 반영된 시조들이다. 이러한 태평성대를 소망하며 취락의 삶을 즐기는 것 역시 사대부의 작품에서 많이 표출되는 사대부적 정서라고 볼 수 있다. 먼저 박문욱의 작품부터 살펴 보도록 하자.

어우화 벗님네야 壽夭長短을 恨치 마소

自古로 聖帝明皇과 賢人君子라도 天命을 卜라거늘 우웁다 秦始皇은 採藥童女 못은 前에 沙丘에 魂이 되고 허물며 漢武帝는 神仙을 求하다가 金丹에 病이 들어 漢南에 덤힌 威嚴이 武陵松柏 빛소리로다.

암아도 太平聖代에 無病無憂홀 쟈 醉코 놀까 ㅎ노라. -박문욱73)

(【날말 풀이】 壽夭長短 : 오래 살고 일찍 죽는 것/ 聖帝明皇: 덕이 높고 지혜가 밝은 왕)

위의 시조에서는 진시황, 한무제를 들어, 오래 살고 일찍 죽는 것을 탓하지 말고 오로지 태평성대에 병과 걱정 없이 술을 즐기며, 즐겁게 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 시조의 중장에서는 중국의 역사상의 인물과 그 고사를 유장한 한문투로 이어가고 있는데 이는 사대부적인 정서를 담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와 같은 정서로써 다음과 같은 시조가 있다.

池塘에 月白하고 荷香이 襲衣홀쎄

金樽에 술 있고 絶代佳人 弄琴커늘 逸興을 못 익의여 界面調를 읊퍼 니
이 松竹은 휘들오며 庭鶴은 춤을 춘다 閑中 이 興味에 늙은 뒤을 모를 노
다

이 中에 悅親寂 樂朋友로 以終天年 ㅎ리라. -김수장74)

73) 『靑邱歌謠』 (주해 장시조, 465)

74) 『周氏本 海東歌謠』 (주해 장시조, 647)

(【날말 풀이】 荷香이 襲衣홀 썬 : 연꽃의 향기가 옷에 스며들 때 / 金樽 : 술동이 / 弄琴커 늘 : 거문고를 희롱하거늘 / 庭鶴 : 뜰에 노니는 학 / 悅親戚 樂朋友 : 친척들과 즐겁게 지내고 벗들과 즐거워 함 / 以終千年 : 타고난 수명을 다함)

이 시도 역시 유장한 한문투의 표현을 사용하여 사대부적인 정서를 표출하고 있다. 또한 초장과 중장에서 나타난 표현들은 사대부의 평시조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표현들이다. 태평 성대를 즐기며 술을 즐기는 태도는 앞의 시와 마찬가지로 사대부적 정서를 지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으로 사대부적 정서를 나타낸 시들을 살펴 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중인 계층의 사설시조에는 그 작가의 신분이 중인이라 하더라도, 사대부적 정서를 표출한 시들을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중인 계층이 사대부 문화를 지향하였고, 그들과 비슷한 의식 세계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게 해 준다. 따라서 이와 같은 작품들을 통해 학습자들은 중인 계층의 의식 세계가 사대부와 많이 닮아 있음을 학습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당대의 중인 계층의 신분적 특수성까지도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서민적 정서 및 생활상 표출의 사설시조

중인 작자층의 사설시조 작품에서는 사대부 작자층 사설시조 작품보다 노골적이고 솔직한 ‘애정’을 표출한 시조가 많았다. 다음의 시를 살펴 보도록 하겠다.

님이라 님을 안이 두라 思郎도 맞춥노라

梨花에 나간 님이 走馬 鬪鷄 노니다가 露月光風 점근 날에 黃菊丹楓 다
盡토록 金鞍白馬 猶未還이라

두어라 님이 비록 니젓시나 紗窓 긴긴 밤의 幸혀 올라 기다린다. -박문

옥75)

(【낱말 풀이】走馬 鬪鷄 : 경마(競馬)와 닭싸움을 붙여 승패를 겨루는 놀이 / 霽月光風 : 비 온 뒤의 밝은 달과 바람처럼 좋은 시절이나 그것처럼 도량이 넓고 시원한 사람을 가리킴 / 金鞍白馬 猶未還이라 : 좋은 안장을 엮은 백마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음. 님의 소식이 없음)

이 사설시조는 박문옥의 작품이다. 이 시조의 화자는 님이 행여 오실까 하여 긴긴 밤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다. 이 시조에서는 사랑이라는 정서를 관념적이거나 교훈적인 어조가 아니라 꾸밈없이 솔직하게 표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민적인 정서를 표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리 알쓰리 살쓰리 그리고 그려 병되다가

萬一에 어느 썩기되던지 만나 보면 그 엇더 할고 應當 이 두손길 뷔여 잡고 어안 병병 아모 말도 못하다가 두 눈에 물결이 어리여 방울방울 썩러져 아로롱지리라 이 옷 압자탈에 일것세 만났다 하고

丁寧이 이럴 줄 알냥이면 차라리 그려 병되는이만 못 하여라. -안민영⁷⁶⁾

(【낱말 풀이】알쓰리 살쓰리 : 알뜰하고 살뜰하게 / 그리고 그려 : 그리워 하고 그리워하여 / 일것세 : 모처럼)

이 시조도 역시 ‘사랑’을 주제로 한 안민영의 작품이다. 이 시의 화자는 상사병이 난 여인이다. 화자는 상사병이 날만큼 너무 그리워서 님을 만나면 어떨까를 생각한다. 그런데 막상 만나면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만 맺힐 생각을 하니, 만나지 않고 상사병 상태로 그냥 있는 것이 낫겠다는 내용이다. 앞에 시와 마찬가지로 솔직한 애정을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민적 정서를 표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중인 계층의 작품 중에 서민들의 생활상을 나타낸 작품들도 있다.

75) 『靑邱歌謠』 (주해 장시조, 121)

76) 『金玉叢部』 (주해 장시조, 545)

먼저 김수장의 작품을 살펴 보도록 하겠다.

谷口暁 우는 소리의 낮잠 깬여 니러보니

저근 아들 글 니루고 며느야기 뵈쓰는디 어린 孫子는 꽃노리한다

뭇초아 지어미 술 거로며 맛 보라고 ㅎ더라 -오격화77)

(【날말 풀이】 谷口暁 : 피꼬리의 울음소리의 한자 표기 / 뭇초아 : 때 맞추어 / 술 거로며 : 술을 걸으며)

이 시의 화자는 낮잠을 깨어 일어나 보았더니 아들을 글을 읽고, 며느리는 베를 짜고, 어린 손자는 꽃놀이를 하고 있다. 때 맞추어 아내는 술을 걸으며 맛을 보라 한다. 이 시조에서는 서민들의 실질적인 생활상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지만 그들이 소망하는 평화로운 어느 일상을 꿈꾸고 있다는 점에서 서민적인 정서가 느껴진다고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세시풍속을 통해, 자신의 시름을 해소하고자 했던 사설시조도 있다. 다음을 살펴 보자.

이 시름 저 시름 여러가지 시름 方牌鳶에 細書成文 ㅎ여

春正月 上元日에 西風이 고이 불 제 을 白絲 ㅎ 열레를 싹가지 프러 싹
을 지 큰 蠶에 술을 부어 마즈막 餞送 ㅎ시 둥게 둥게 눕히 찌셔 白龍의
구뵈 ㄹ치 굶틀 굶틀 뒤틀어져서 구름 속에 들고거나 東海 바다 건너 가서
외로이 선는 남게 걸넛다가

風蕭蕭 雨落落 ㅎ 제 自然 消滅 ㅎ여라 -김수장78)

(【날말 풀이】 防牌鳶 : 방패처럼 생긴 직사각형의 연 / 細細成文 : 자세하게 글을 지음 / 남게 : 나무에 / 風蕭蕭 雨落落 ㅎ 쉼 : 바람이 솔솔 불고 비가 내리 때)

77) 『六堂本 靑丘永言』 (주해 장시조, 57)

78) 『周氏本 海東歌謠』 (주해 장시조, 552)

<이 시름 저 시름~>의 화자는 시름이 많은데, 이것을 연날리기의 세시 풍속을 통해 해결하려고 한다. 방패연에 자세히 글로 써서 정월 대보름날 하늘로 띄우면서 동해 바다 건너 외로이 서 있는 나무에까지 날아갔다가, 바람이 우수수 불 때 사라지기는 것처럼 자신의 시름도 그렇게 해소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렇게 소박하면서도 소탈한 정조는 서민들의 정서 및 생활상과 닮아 있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 본 것과 같이 중인계층의 사설시조에는 서민들의 정서와 생활이 반영된 시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펴본 시조 외에 중인 가객으로서의 독특한 정서가 반영된 시도 있었다. 김수장 사설시조 두 편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노리 갖치 죠코 죠흔 줄을 벗님네 아뉘든가

春花柳 夏淸風과 秋月明 冬雪景에 弼雲 昭格 湯春臺와 漢北絶勝處에 酒肴 爛漫흔디 죠흔 벗 가즌 嵇笛 아름다운 아모 가히 第一名들이 次例로 안
 궤 엇결어 불을 썩에 中한넙 數大葉은 堯舜 禹湯 文武갓고 後庭花 樂時調는
 漢唐宋이 되엿는디 搔聳이 編樂은 戰國이 되어이셔 刀創劍術이 各自騰揚흔
 야 官絃聲에 어리엿다 功名도 富貴도 나 물리라

男兒의 이 豪氣를 나는 죠화 흥노라. -김수장79)

(【날말 풀이】 春花柳 夏淸風과 秋月明 冬雪景 : 봄철에는 꽃과 버들이, 여름철에는 맑은 바람과, 가을철에는 밝은 달과, 겨울철에는 눈이 내린 뒤의 경치가 계절을 대변할 수 있는 아름다움을 말한 것임 / 弼雲 昭格 湯春臺 : 서울 도성의 서북쪽인 삼청동에서 사직동에 이르는 동리와 그 곳에 있던 누대(樓臺)로 서민들의 놀이터로 이름이 남/ 漢北絶勝處 : 한강 북쪽에 있는 경치가 뛰어난 곳 / 酒肴 爛漫 : 술과 안주가 가득히 쌓임 / 嵇笛 : 깡깡이와 피리 / 各自騰揚 : 각각 스스로 기세와 지위가 높아서 떨침)

79) 『珍本 靑丘永言』 (주해 장시조, 139)

터럭은 거무나 희나 世事는 갖고 쌀코

거문고 한낱 우희 니 노리 굿지 말고 우리의 벗님네와 잡씨니 勸호거니

晝夜長常 노스이다

百年이 꿈갓다 혼들 헛마 어이 흐리오. -김수장⁸⁰⁾

(【날말 풀이】 晝夜長常 : 밤낮을 가리지 않고 언제나 / 百年이 꿈갓다 혼들 : 백년이란 세월이 꿈처럼 짧다고 한들)

<노리 갖치 죠코~>에서는 ‘풍류’적 정서가 드러난 시다. 그런데 위의 사대부적 정서를 반영한 풍류와는 조금 다르다. 이 시에서는 당시의 놀이터와 노래관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학습자들은 이 시를 학습함으로써 당대의 가객들의 유흥의 현장을 느낄 수 있다.

<터럭은 거무나 희나~>는 중인층의 신분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노래로 풀고자 하는 것이 드러난 시다. 이 시조에서는 세상일을 멀리 하고 거문고와 벗과 어울려 풍류 생활을 하겠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중인 가객들은 조선 후기에 이르러 경제적으로 풍요해져서 사대부와 같은 문화나 학식을 누릴 수 있었으나, 사대부와 같은 입신양명의 포부를 펼칠 수는 없었다. 이 시에서는 그러한 중인들의 삶이 드러난다고 하겠다.

이상으로 중인 계층이 지은 사설시조에는 서민들의 정서와 생활이 반영된 시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고, 뿐만 아니라 중인 가객들의 생활이 표출된 작품도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텍스트를 통해 학습자들은 중인 계층들이 사대부의 문화와 서민 문화를 고루 수용할 수 있는 특수한 계층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80) 『周氏本 海東歌謠』 (주해 장시조, 738)

3) 유명씨 작자층의 텍스트 활용의 실제

이 장에서는 위에서 살펴본 유명씨 작자층의 작품들 중, 일부를 통해 학습 자료를 구성해 보고자 한다.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다.

- 사대부 계층과 중인 계층의 사설시조 작품을 감상하고, 그 미의식을 안다.
- 작가의 의식세계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의식 세계를 가지고 있었음을 설명할 수 있다.

첫 번째 학습 목표는 사설시조의 작자층에 대해서 학습자들이 재인식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사대부와 중인 계층의 작품들을 학습함으로써, 기존에 맹목적으로 ‘사설시조는 서민 문학’이라는 틀을 깰 수 있다.

두 번째 학습 목표는 이러한 작자층의 작품들을 학습하면서 한 계층이 고정된 의식 세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의식 세계를 가지고 있었음을 학습하기 위함이다. 사설시조에서는 같은 계층일지라도 상반된 의식 세계를 가진 작품들이 많이 있다. 이를 통해 고정된 시각이 아닌 열린 시각으로 문학을 대할 수 있도록 한다.

이 학습 자료에 제시한 텍스트는 1장에서 언급한 사대부 계층의 사설시조에서 두 작품을, 2장에서 언급한 중인 계층의 사설시조에서 나머지 두 작품을 선별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학습자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현대어로 풀어서 제시하였고, 어려운 낱말은 밑에 ‘뜻풀이 도움판’을 통해서 학습자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하였다. 학습 자료는 다음과 같다.



(야)

층효도 내 못하고 비록이 죽을지언정

暮夜明月(모야명월)의 두견새의 녀이 되어 평생의 임금과 부모를 위한 원한을 梨花一枝에(이화일지)에 春帶雨(춘대우)가 되어서니

행인도 내 뜻을 알아 가던 말을 멈추고 걱정하는구나. -강복중-

(나)

이 몸에 가진 병이 한 두 가지 아니로다

보아도 못 보는 눈 들어도 못 듣는 귀 말아도 못 말는 코 말 못하는 입이로다

잇다감 요통과 복통이며 眩氣(현기) 嘔痰(구담) 滯症(체증)은 別症(별증)인가 흐노라. -김민순-

(다)

연못에 월백하고 연꽃의 향기가 옷에 스며들 때

金樽(금준)에 술 잇고 질대가인 弄琴(농금)커늘 逸興(일흥)을 못 이기여 제면조를 읊어 내니 송죽은 휘들거리며 뜰에 노니는 학은 춤을 춘다 한가한 가운데 이 흥미에 늙은 줄을 모르겠구나

이 중에 친척들과 즐겁게 지내고 벗들과 즐거워함이 以終天年(이종천년) 흐리라. -김수장-

(라)

노래같이 좋고 좋은 줄은 벗님네 알던가.

봄에는 꽃과 버들이, 여름에는 맑은 바람, 가을에는 밝은 달, 겨울철에는 눈이 내린 뒤의 경치에 弼雲 昭格 湯春臺(필운 소격 탕춘대)와 한강 북쪽에 있는 경치가 뛰어난 곳에 술과 안주가 가득히 쌓이는데 좋은 벗 같이 嵇笛(혜적) 아름다운 아무개 제일 명창들이 차례로 앉아 서로 어긋 매기어 불을 적에 中 한잎 삭대엽은 요순 우랑 문무 같고 後庭花 樂時調(후정화 낙시조)는 漢唐宋(한당송)이 되었는데 騷簞(소옹)이 編樂(편락)은 戰國(전국)이 되어 있어 칼과 창을 쓰는 기술이 각자 등양하여 官絃聲(관현성)에 어리었다 공명도 부귀도 나 몰라라

남아의 이 호기를 나는 좋아하노라. -김수장

◎ 뜻 풀이 도움판

暮夜明月(모야명월) : 달이 환히 밝은 이슬한 밤 / (梨花一支)이화일지 : 배꽃이 핀 가지 하나 / 春帶雨(춘대우) : 봄빛을 머금은 비 / 眩氣(현기) 嘔痰(구담) 滯症(체증)은 : 어지럽고 가래를 뱉고 소화가 안되는 증상은 / 別症(별증) : 합병증 金樽(금준): 술동이 / 弄琴(농금)커늘 : 거문고를 희롱하거늘 / 逸興(일흥) : 뛰어난 흥취 / 以終天年(이종천년) : 타고난 수명을 다함 / 彌雲 昭格 湯春臺(필운 소격 탕춘대) : 서울 도성의 서북쪽인 삼청동에서 사직동에 이르는 동리와 그 곳에 있던 누대(樓臺)로 서민들의 놀이터로 이름이 남 / 嵇笛(혜적) : 강강이와 피리 / 中 한낱 數大葉(삭대엽) 後庭花(후정화) 樂時調(낙시조) 漢唐宋(한당송) 騷聳(소용) 編樂(편락) : 가곡의 곡조의 명칭 / 戰國(전국) : 전국시대 / 官絃聲(관현성) : 관악기와 현악기의 소리

● 기본 학습 ●



1. (가)시조에서 주제를 나타내는 핵심적인 시어를 찾아 써 보자.
2. (나)와 (라) 시조에서 화자가 처한 상황을 말해 보자.
3. (다)시조의 초장과 중장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를 말해 보자.
4. (라)에서 화자는 무엇을 권하고 있는지 말해 보자.

● 심 화 학 습 ●

5. (가)~(라) 중 사대부적 정서가 느껴지는 시조는 무엇인지 말해 보자. 또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해 보자.

6. (나) 작품의 작가에 대한 소개는 다음과 같다.

김민순(金敏淳) : 조선시대의 사대부이자, 가인(歌人)으로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신여(愼汝). 호는 매옹(梅翁)·매월송풍(梅月松風)이다. 벼슬은 현감(縣監)을 지냈다. 다양한 작품 경향에 다작의 작가로서 《청구영언(靑丘永言)》에 사설시조(辭說時調) 3수를 포함한 42수의 시조가 전한다.

(나)의 작가는 조선시대의 사대부이다. 우리가 생각하던 사대부의 작품과 (나) 작품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7. <자료 1>과 <자료 2>는 중인 가객들에 대한 글이다.



<자료 1>⁸¹⁾

주고사의 말에 의하면, 김성기는 서울 사람으로 장악원 소속의 악공인데 그 사람됨이 강개하고 곳곳하여 굽힐 줄을 몰랐더랍니다. 신축년 무렵에 그는, 서호(西湖)가에 집을 짓고 남시질하며 스스로 즐겼지요. 그는 음률이 묘리를 터득했고 더욱 비파를 잘 타서 여러 악공들 중에 으뜸이었죠. 부귀한 사람들이 그를 다투어 초청해서 그의 연주를 듣는 사람이 늘 수십 인이나 되었지요. (중략)

김성기는 날마다 작은 배에 술을 싣고 술을 마신 다음 홀로 강에서 남시질을 하며, 간혹 밤을 새고 돌아오기도 했더랍니다. 배가 돌아올 적이면 으레 통소를 불며 비파를 타서, 표연히 세상을 떠나있는 듯 보였지요.

(중략)

<자료 2>⁸²⁾

손봉사는 점치는데 손방이고 대신 가곡을 잘 했다. 우리나라의 우조니 계면조니 하는 24성에 두루 통달하였다. 매일 가두에서 높은 목청 가느다란 소리로 노래를 불렀다. 바야흐로 노래가 절정에 이르면 청중이 담을 쌓아서 던지는 돈이 비오듯 쏟아진다.

이 글과 (라)의 시를 통해서 중인 가객들의 활동 형태, 경제 생활, 연행 양상은 어떠했을지 이야기해 보자.

81) 『雲巢謾稿』의 “基樂工金聖基事”를 ‘진재교, 『알아주지 않은 삶』, 태학사, 2005.’에서 인

위의 학습지에는 먼저 기본문제와 심화문제로 나누었다. 기본문제는 작품 내용 이해를 위한 문제이다. 작품의 내용 이해가 먼저 선행되어야 목표와 관련된 문제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먼저 제시하였다. 심화문제는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문제이다. 이 학습지는 사실시조 작자층에 관해서 학습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이를 초점을 두고 문제를 제시하였다.

1번 문제는 (가) 시조의 주제를 묻는 문제이다. 이 문제를 통해서 학습자들은 (가)의 사실시조가 ‘충효’에 대한 주제를 담고 있음을 학습할 수 있다. 2번 문제는 (나)의 시조를 통해 화자가 처한 상황을 알아보는 학습 문제인데, 이것에 대한 예시 답안으로는 (나)의 경우 ‘화자는 병이 많다. 아마도 현실적 삶이 매우 고통스러운 것 같다.’ 정도로 유추할 수 있다. 3번 문제는 초장과 중장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를 찾는 문제이다. 이 문제에 대한 예시 답안으로는 ‘여유로운 분위기’ 등으로 제시할 수 있다. 4번 문제의 예시 답안은 ‘풍류(노래를 부르며 즐길것)를 권하고 있다’라고 제시할 수 있다. 이상의 기본 문제는 심화 학습으로 나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문제이므로, 교사는 학습자들이 기본 문제를 얼마나 해결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또 만약 이해되지 않은 작품들이 있다면, 적절히 보충 설명하여 모두 숙지한 후 다음 문제로 나아가야 한다.

5번 문제부터는 심화 문제로 학습 목표와 관련된 문제이다. 5번 문제는 사대부적 정서를 느낄 수 있는 시조를 찾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찾아보는 문제이다. 학습자들은 (가)와 (다)의 정서가 평시조에서 보던 사대부적 정서와 맞닿아있으므로, (가)와 (다)의 시조를 사대부적 정서로 쉽게 찾을 수 있다. 만약 학습자들이 사대부적 정서의 예로 적절한 작품을 떠올리지 못할 때에 교사는 10학년 국어(下)에서 배운 윤선도의 <어부사시사> 등을

용하여 수록하였다.

82) 조수삼의 『추재기이』를 ‘이우성 임영택 편, 『19세기 조선, 생활과 사유의 변화를 엿보다』, 일조각, 1978.’에서 인용하여 수록하였다.

예로 들어 배경지식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6번과 7번 문제는 좀 더 심화된 문제이다. 7번에서 제시한 ‘김민순’은 조선조에 현감의 벼슬까지 지낸 사대부이다. 학습자들은 (나)의 시조를 지은 작자가 사대부라는 것을 알고, 그동안 보아왔던 사대부들의 시와는 다른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만약 사대부 작품들을 쉽게 떠올리지 못한다면 (가)의 작품을 예로 들어 안내 할 수 있다. 즉, 우리가 배웠던 평시조나 기타 사대부의 문학 작품에서는 (가)와 같은 유교적 덕목 등을 주제로 한 작품들이 많았다는 것을 안내해 주고, (나)의 작품과의 차이를 물어볼 수 있다. 학습자들은 (나)가 서민들의 생활고를 반영했다는 내용을 알게 되고, 작자층이 사대부이지만 반드시 사대부의 삶이 반영된 내용만을 작품화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7번 문제는 (라)와 제시한 자료들을 통해 중인 가객의 생활상을 알게 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는 다소 어려울 수 있으므로, 토론을 통해 학습자들의 다양한 생각들을 이끌어 낸다. 먼저 기본 문제를 토대로 (라) 시조에서 가객들의 생활상을 알게 한다. 또한 제시된 자료들을 토대로 중인 가객들의 활동 형태, 경제 생활, 연행 양상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교사는 여기에서 중인 가객들이 조선후기 도시와 상공업의 발달로 인해 부를 축적하였고, 이로 인해 유흥과 문화, 예술을 소비하는 계층으로 성장하였다는 것을 보충 설명 해 줄 수 있다. 이 문제를 통해 학습자는 중인 가객들의 특수한 삶을 이해할 수 있다. 나아가 중인 계층이 사대부의 문화와 서민 문화를 고루 수용할 수 있는 특수한 계층이었음을 알 수 있고, 이들의 작품 세계 역시 고정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2. 사설시조 주제 관련 제안

II장을 통해 사설시조는 다양한 주제 의식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현재 사설시조 교육은 다양한 주제 의식을 고루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평시조와 차별화된 사설시조의 주제 의식을 찾고자 하여, 탈중세적인 내용에 초점을 맞춰 텍스트를 선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작품 선정으로 인해 학습자들은 사설시조 작품들이 모두 탈중세적인 주제 의식만을 표출하고 있다고 오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선별된 작품들만 제시하기 보다는 학습자들에게 다양한 주제를 가진 작품들을 제시한 후, 학습자 스스로 사설시조가 평시조와 다른 차이점을 찾는 방향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이 장에서는 사설시조의 다양한 주제를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 먼저 1장에서는 교과서 안 무명씨 사설시조 텍스트를 주제에 따라 분류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이 주로 어떤 주제에 초점이 맞춰졌는지 살펴 보고자 한다. 2장에서는 1장을 토대로 보충되어야 할 텍스트의 주제 의식을 몇 가지 선택한 후, 이에 맞는 텍스트들을 선별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3장에서는 교과서 안의 사설시조 텍스트와 교과서 밖의 사설시조 텍스트를 절충하여 균형 있는 주제를 학습하기 위한 학습 자료를 하나의 예시로 마련하고자 한다.

1) 교과서 안 무명씨 사설시조 텍스트

이 장에서는 교과서 안 무명씨 사설시조의 주제 의식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주제 의식 중에서도 어떠한 주제 의식에 초점을 맞춰 사설시조를 가르치고 있는 지 알 수 있다. 교과서에 실린 텍스트의 중 가장 많이 실린 주제 의식은 ‘애정’이었는데, 이 중에서도 ‘그리움’을 내용으로 한 작품들이 가장 많았다. 다음의 작품들을 살펴 보자.

나모도 바히돌도 업슨 피헤 매게 췌친 가토리 안과,
 大川 바다 한 가운데 一千石 시른 비에, 노도 일코 닷도 일코 농총도 근
 코 돛대도 짓고 치도 빠지고, 바람 부러 물결치고 안개 뒤 셋계 즈자진 날
 에, 갈 길은 千里 萬里 나쁜디 四面이 거머 어둑 天地 寂寞 가치 노을 췌는
 디, 水賊 만난 都沙工의 안과,

엇그제 님 여원 내 안히야 엇다가 ㄴ을 흐리오. 83)

꺄도리 저 꺄도리 에엇부다 저 꺄도리
 어인 꺄도리 지는 들 새는 밤의 긴 소리 자른 소리 節節이 슬픈소리 제
 혼자 우리네어 紗窓 여원 즘을 슬드리도 췌오논고야.

두어라 제 비록 微物이나 無人洞房에 내 췌 알리는 저뿐인가 흐노라.84)

벼름도 쉬여 넘는 고기, 구름이라도 쉬여 넘는 고기.

山진이 水진이 海東靑 보르미 쉬여 넘는 高峯 長城嶺 고기.

그 너머 님이 왔다 흐면 나는 아니 흐 번도 쉬여 넘어 가리라.85)

<나모도 바히 돌도>에서는 입을 잃은 슬픔을 표현하고 있다. 이 시의 초
 장과 중장을 보면 까투리나 도사공은 극한 상황에 처해 있다. 까투리는 나
 무나 바위 등 숨을 곳이 전혀 없는 장소에서 매에게 쫓기고 있는 절박한 상
 황이다. 도사공 또한 마찬가지로, 대천 바다 한 가운데서 일천 석을 실은
 채로 노, 닷, 용총, 키 등을 모두 잃어버린 배를 타고 날씨마저 험악한데 수
 적까지 만난 상황이다. 이시의 화자는 까투리와 도사공의 상황보다 ‘입을 여
 원 내 마음’이 더 절박함을 표현하여, 입을 잃은 슬픔을 해학적이면서도 참

83) 『珍本 靑丘永言』 (한국고전문학전집, 13)

84) 『珍本 靑丘永言』 (한국고전문학전집, 77)

85) 『樂學拾零』 (한국고전문학전집, 44)

신하게 표현하다고 있다.

<꿇도리 저 꿇도리>의 화자는 사랑하는 임이 그리워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밤새도록 울어대는 귀뚜라미 소리 때문에 더욱 잠을 이루지 못한다. 그런데 화자는 그 소리는 마치 자신의 마음을 대변해 준다고 생각한다. 화자는 귀뚜라미에게 동병상련을 느끼며, 외로움을 표현하고 있다.

<벼룩도 쉬어 넘는 고지 >는 임에 대한 그리운 마음을 진솔하게 그리면서도 과장적으로 형상화한 작품이다. 이 시조의 화자는 바람이나 구름, 매들까지도 쉬어야만 넘을 수 있는 높은 고개를 임을 만날 수 있다면 자신은 한번도 쉬지 않고 단숨에 넘어가겠다고 노래하고 있다. 임에 대한 사랑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으며, 사랑을 성취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가 함축되어 있다.

님이 오마 흐거늘 저녁 밥을 일지어 먹고

中門 나서 大門 나가 地方 우회 치드라 안자 以手로 加額하고 오는가 가
는가 건넌 山 바라보니 거머핏들 셔 잇거늘 져야 님이로다. 보선 버서 품에
품고 신 버서 손에 쥐고 곰비님의 님비곰비 천방지방 지방천방 즈 디 므른
디 곶희지 말고 위령충창 건너가서 情엿 말 흐려하고 져눈을 흘긔보니 上
年 七月 사흔날 곶가벽긴 주추리삼대 슬드리도 날 소겨다.

모쳐라 밤일세만정 흥혀 낮이런들 늬 우일번 흐쾌라.⁸⁶⁾

窓 맞기 엇득 엇득커니 님만 너겨 나가 보니,

님은 아니 오고 우스름 달빛체 열 구름이 날 속겨다.

못초아 밤일세만정 흥여 낮지런들 님 우일 번 흐여라. ⁸⁷⁾

86) 『珍本 靑丘永言』 (주해 장시조, 164)

87) 『六堂本 靑丘永言』 (주해 장시조, 657)

개를 여라몬이나 기르되 요 개 꺾치 알미오라.

뛰은 님 오며는 꼬리를 뽀뽀 치며 썩락 나리썩락 반겨서 내똥고, 고운 님
오며는 뒷발을 버둥버둥 머르락 나으락 캉캉 즈져서 도라가게 한다.

원뱀이 그릇그릇 난들 너 머길 줄이 이시랴.⁸⁸⁾

<님이 오마 흥거늘>은 입을 보고 싶은 애타는 마음을 실감나게 그려 낸 작품이다. 입이 오신다는 소식에 잠시도 앉아 있지 못하도 허둥지둥 마중을 나갔다가 주추리 삼대에게 속고 나서 멧쩍어하는 모습이 과장적이면서도 해학적인 묘사로 형상화되어 있다.

<窓 밧기 엇득 엇득커니>는 <님이 오마 흥거늘>과 시상 전개와 주제가 매우 흡사하다. 특히 종장 표현은 거의 일치하고 있다. 이렇게 비슷한 시상 전개가 있는 작품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노래의 발상과 주제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개를 여라몬이나>는 사랑하는 입을 기다리는 마음을 해학적 표현으로 형상화한 작품이다. 이 시에서 시적 화자는 자신이 기르는 개가 미운 입을 반겨 맞고 고운입은 짓어서 쫓아 버린다고 원망한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 개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입을 원망하는 것이다. 입에 대한 원망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개를 통해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소박하면서도 해학미를 느끼게 한다.

이상의 ‘애정’과 관련된 사설시조 작품들을 살펴 보았다. 이를 통해 교과서 안에서는 참신한 표현 혹은 해학미를 느낄 수 있는 작품들을 수록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많이 수록한 주제 의식은 ‘현실 세태의 비판 및 풍자’이다. 이와 관련된 작품들을 살펴 보도록 하겠다.

88) 『珍本 靑丘永言』 (한국고전문학전집, 124)

두터비 꾀리를 물고 두힘 우희 치드라 안자
것년 山 바라보니 白松骨이 썬 잇거늘 가슴이 금죽혀여 풀덕 썬여 내듯다
가 두힘 아래 잣바지거고
모쳐라 늘넨 널식만정 에혈질 번 흐괘라.⁸⁹⁾

흔 눈 멀고 흔 다리 저는 두터비 서리 마즈 꾀리 물고 두엄 우희 치다라
안자,
것년 山 바라보니 白松骨리 썬 잇거늘 가슴에 금죽혀여 풀썬 썬다가 그
아리 도로 잣바지거고나.
못쳐로 날넨 쥘식만정 흥혀 鈍者 | 런들 어혈질 번 흐괘라.⁹⁰⁾

개야미 불개야미 존등 부러진 불개야미,
압발에 疔腫나고 뒷발에 종귀 난 불개야미, 廣陵 심재 너머 드러 가람의
허리를 가르 무려 추혀 들고 北海를 건너닷 말이 이셔이다. 님아님아
온 놈이 온 말을 흐여도 님이 짐작흐쇼셔.⁹¹⁾

<두터비 꾀리를 물고>에서는 양반들의 허장성세 풍자하고 있다. 두터비, 파리, 백송골 등을 의인화시켜 약육강식하는 인간 사회와 양반들의 비굴하고 허세에 찬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흔 눈 멀고 흔 다리>도 역시 이와 비슷한 시상 전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작품에서도 의인화 수법을 통해 양반들의 허장성세를 풍자하고 있다.

<개야미 불개야미>는 남을 모함하는 말에 현혹되지 말라는 교훈적 내용을 개미를 소재로 하여 희화적으로 형상화한 작품이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89) 『珍本 靑丘永言』 (주해 장시조, 207)

90) 『樂學拾零』 (한국고전문학전집, 415)

91) 『珍本 靑丘永言』 (한국고전문학전집, 128)

말을 하면 대개 그 말을 믿게 되는데, 이 작품은 그러한 위험성을 풍자적으로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의 작품들에서도 ‘현실 세태의 비판 및 풍자’가 드러나고 있다. 다음 작품들을 살펴 보자.

맥들에 동난지이 사오. 저 장스야, 네 황후 기 무서시라 웨는다. 사자.

外骨內肉(외골내육), 兩目(양목)이 上天(상천), 前行(전행) 後行(후행), 小(소)아리 八足(팔족), 大(대)아리 二足(이족), 靑醬(청장) 아스스하는 동난지이 사오.

장스야, 하 거복이 웨지 말고 게젓이라 흐렴은.⁹²⁾

식어마님 며느라기 낮바 벽 바흘 구로지 마오.

빛에 바른 며느린가 갑세 쳐 온 며느린가 밤나모 석근 들걸에 휘초리 나
니 꺾치 알살피신 식어마님, 벗 뵈 식쫘 꺾치 되종고신 식어마님, 三年 겨
른 망태에 새 송곳 부리 꺾치 썩족흐신 식누으님, 당피 가른 밧티 돌피 나
니 꺾치 시노란 윗곳 꺾튼 피쫘 누는 아들 하나 두고

진 밧티 멧곳 꺾튼 며느리를 어디를 낮바 흐시논고.⁹³⁾

<맥들에 동난지이 사오>는 게젓 장수와의 대화로 이루어진 작품이다. 종장에서 ‘장스야 하거복이 웨지말고 게젓이라 흐렴은’이란 표현을 통해, ‘게젓’이라고 하는 간단하고 쉬운 우리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한자를 동원하여 현학적으로 표현하여 외치고 다니는 게젓 장수를 빈정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시조에서는 게젓 장수와의 상거래를 통해서 교훈을 주고자 하는 작품 설정이 특징적이다.

<식어마님 며느라기>은 대가족 제도에서 시집살이의 어려움을 표현한 것

92) 『珍本 靑丘永言』 (주해 장시조, 190)

93) 『珍本 靑丘永言』 (한국고전문학전집, 159)

으로, 우리 옛 여인들의 맵고 쓴 시집살이의 일면을 엿볼 수 있는 시조이다. 며느리의 관점에서 보는 시집 식구들의 모습이 사실적이면서도 해학적으로 그려져 있어 보는 웃음을 자아낸다. 시집 식구들의 해학적인 모습을 통해 시댁 식구들에 대한 비판과 아울러 봉건 제도 하에서 왜곡된 가정생활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이상의 ‘현실 비판 및 풍자’ 관련된 사설시조 작품들을 살펴 보았다. 주로 서민적 삶을 바탕으로 현실에 대해 비판하고 풍자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 역시 앞의 ‘애정’을 주제로 한 작품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작품들에서 해학미를 느낄 수 있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주제 외에 ‘시름’을 나타낸 사설시조와 ‘풍류’를 나타낸 작품들도 있었다. 먼저 ‘시름’과 관련된 사설시조 작품을 살펴 보겠다.

窓 내고자 窓을 내고자 이 내 가슴에 窓 내고자

고모장지 세살장지 들장지 열장지 암돌져귀 수돌져귀 비목걸새 크나큰 장도리로 똥씩 바가 이 내 가슴에 窓 내고자.

잇다감 하 답답홀 제면 여다져 불가 흐노라. 94)

한숨아 세한숨아 네 어니 틈으로 드러온다.

고모장즈 세살장즈 가로다지 여다지 암돌져귀 수돌져귀 비목걸새 똑닥 박고 龍거북 즈물쇠로 숙이숙이 츠엿논디 屏風이라 덜적 저븐 簇子 | 라 더 디글 만다, 네 어니 틈으로 드러 온다.

어인지 너 온 날이면 즈 못 드러 흐노라. 95)

<창 내고자 창을 내고자~>는 세상살이의 고달픔이나 번뇌에서 기인하는

94) 『珍本 靑丘永言』 (한국고전문학전집, 84)

95) 『珍本 靑丘永言』 (한국고전문학전집, 102)

답답한 심정을 하소연하고 있는 작품이다. 답답한 가슴을 꽉 막혀 있는 방
으로 나타내고, 거리에 창문을 만들어 여담음으로써 그 답답함을 해소해 보
겠다는 착상이 참으로 기발하고 재미있다. 등장에서 구체적인 생활 언어를
구사하여 문 만드는 모습을 과장적으로 묘사한 것이 특징적이라 할 수 있
다.

<한숨아 세한숨아>는 <창 내고자 창을 내고자>와 비슷한 시상 전개를
보이고 있다. 이 시조에서는 삶의 고뇌에서 오는 한숨으로 인해 잠 못 이루
는 밤의 정서를 노래하고 있다. 또한 ‘그칠 줄 모르는 시름’이라는 어두운
주제를 다루면서도 그것을 해학적으로 처리하여 슬픔을 웃음으로 해소시키
는 묘미를 보여주고 있다. 모든 자물쇠로 다 잠그고, 문을 닫을 대로 다 닫
아도 어느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가는 한숨, 네가 오늘 것을 모르겠지만, 네
가 온 날 밤이면 잠을 들 수가 없다는 푸념 속에 세상사를 한탄하는 심정이
잘 나타나 있다. 마지막으로 ‘풍류’를 주제로 한 작품으로 다음과 같은 시조
가 있었다.

논 밭 갈아 기음 먹고 뽕잠방이 다임 쳐 신들 메고
 낮 가라 허리에 초고 도끼 버려 두러메고 茂林山中 들어가서 샅다리 마른
 썸을 뷔거니 버히거니 지계에 질머 집팡이 받쳐 노코 식음을 츠즈가셔 點
 心도 습부시이고 곱방디를 툇툇찌러 님담비 휘여 물고 코노리 조오다가
 夕陽이 지 너머 갈 제 엇씨를 추이즈며 긴 소리 저른 소리 흐며 어이 갈
 고 흐더라.⁹⁶⁾

<논 밭 갈아 기음 먹고>는 농부의 일상사를 있는 그대로 그려 낸 작품이
다. 논밭에 김을 맨 다음 무렵 산중에 들어가 나무를 하여 지계에 짊어지고,
지팡이 받쳐 놓고 샘을 찾아가 점심 도시락 먹고, 앞담배 피우고 즐다가 석

96) 『六堂本 靑丘永言』 (한국고전문학전집, 281)

양에 재 넘어갈 때 어깨를 추스르며 긴 소리 짧은 소리를 한다는 내용으로, 풍류적 자세가 엿보인다.

지금까지 교과서 안 무명씨 사설시조 텍스트를 살펴 보았다. 교과서에서는 애정과 현실 세태 비판 및 풍자를 다룬 작품들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이 중에서도 참신한 표현과 해학미를 중심으로 작품을 선택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교과서 안 작품들이 문학성이 뛰어난 작품이라는 것은 알 수 있었으나, 한정된 주제 의식만을 수용하고 있어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교과서 안 작품들은 주로 서민적 정서를 느낄 수 있는 작품들이었기 때문에 학습자들은 사설시조 작품들이 서민적 정서만을 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함께 균형 있는 주제를 학습하기 위한 또다른 텍스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음 장에서는 교과서 밖 무명씨 사설시조 텍스트를 통해 그 대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다.

2) 교과서 밖 무명씨 사설시조 텍스트

앞 장에서 살펴 본 것과 같이 교과서 안의 사설시조의 주제는 주로 애정, 사회 비판과 풍자가 대부분이었고, 그 외에 시름과 관련된 주제와 풍류와 관련된 주제가 있었다. 이 장에서는 교과서에서 다루지 않고 있는 주제들의 작품을 선별하여 ‘주제의 균형성’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풍류’, ‘강호·전원’, ‘중세의 관념과 송축’을 주제 의식으로 한 작품들을 살펴 보도록 하겠다. 먼저 ‘풍류’와 관련된 사설시조 작품을 살펴 보도록 하자.

노새 노새 매양 장식 노새 노새 낮도 놀고 밤도 노새

壁上의 그림 黃鷄 수둑이 두 노래 탁탁 치며 긴목을 느리워서 회회쳐 우
도록 노식그러

人生이 아춤 이슬이라 아니 놀고 어이리 97)

(【날말 풀이】 장식 : 언제나. 쉬지 않고)

디장부 공성신퇴 후의 임천의 초당짓고 만권 서책 옆에 앉코

천금 준마 술질하야 보라미 길드려 두고 노복 하야 밧 갈니고 절디가인
옆에 두고 금준의 술을 부어 벽오동 거문고 시 줄 언저 물음페 언고 남풍시
화답하야 강구연월의 누엇스니

이목지소호와 심지지소락은 이 뿐인가.⁹⁸⁾

(【날말 풀이】 보라매 : 매의 일종. 일년이 못된 새끼를 잡아 길들이어 곧 사냥에 쓰는 매 /
진이목지소호(盡耳目之所好) 궁심지지소락(窮心之志所樂) : 눈과 귀에 좋은 것은 다하고, 마
음에 즐거운 것을 다함)

東山 昨日雨에 老謝과 바둑 두고

草堂 今夜月에 謫仙을 만나 酒 一斗 詩 百篇이로다

來日은 陌上 靑樓에 杜凌豪 邯鄲娼과 큰 못ㄴ지 흐리라.⁹⁹⁾

(【날말 풀이】 酒 一斗 詩 百篇 : 술을 한 말 마시는 동안 시 백 편을 지음. 이백이 그러했
다 함 / 陌上 靑樓 : 변화한 거리의 기생 집)

<노새 노새>는 밤낮 할 것 없이 계속 놀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이유
는 종장에 나타나 있는데, ‘人生이 아침 이슬’이라 하며 계속 놀자고 한다.
즉 인간의 삶이 마치 아침 이슬과 같이 짧으니, 살고 있는 이 생에서 원없
이 놀아보자는 풍류적 자세를 엿볼 수 있다.

<디장부 공성신퇴 후의>의 시적 화자는 공을 이루고 물러난 사대부이다.
화자는 강가에 초당을 짓고 만권의 서책을 옆에 쌓아 두고, 음악과 술을 즐
기며 유유자적한 삶을 보낸다. 벼슬길에서 물러나 자연을 벗 삼고 풍류를
즐기는 여유로운 삶이 드러나고 있다.

97) 『靑丘永言 珍本』 (한국고전문학전집, 220)

98) 『詩歌謠曲』 (한국고전문학전집, 222)

99) 『靑丘永言 珍本』 (한국고전문학전집, 229)

<東山 昨日雨에>에서도 화자가 풍류를 즐기는 모습이 여실히 드러난다. 이 시의 화자는 어제는 사안과 바둑을 두고, 오늘 밤엔 이태백과 시를 나누고, 내일은 두보와 잔치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이 시도 역시 사대부적 정서를 담은 시로 풍류를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살펴 볼 것은 강호·전원과 관련된 사설시조 작품이다.

내 집이 器具 업써 벗이 온들 ㅁ엇스로 對接 홀이
압 내히 후린 곡이를 키야 온 삼쥬에 속소와 녹코
엇쓰제 쥐비즌 술 닉엇씨리라 걸게 걸러 내여라.¹⁰⁰⁾

(【낱말 풀이】 器具 : 살림살이 / 삼쥬 : 나물의 일종 / 속소와 : 끓이어 / 쥐비즌 : 술 같은 것을 손으로 주물러 담근)

草堂의 오신 손님 기 무어스로 對接 홀고
울엽쉴 흰 점신의 미느리 긴강의 還燒酒 술 타고 울손 전복의 나 낙근
고기 속고쳐라
아희야 잔 써져 오너라 벗님 더접 흐리라.¹⁰¹⁾

(【낱말 풀이】 기나리 긴강 : 미나리 나물)

<내 집이 器具 업써>와 <초당의 오신 손님>의 두 사설시조는 강호 혹은 바닷가 근처 전원을 배경으로 한 작품이다. <내 집이 器具 업써>는 누추한 초가집을 찾아온 친구에게 진수성찬은 아니지만 소박한 음식을 마련하여 정성껏 대접하려는 시적 화자의 심정을 노래하고 있다. 또 <초당의 오신 손님>에서는 살림이 비록 없지만 고기와 나물을 끓여 안주로 삼고 손으로 주물러 만든 보잘것없는 술을 진하게 걸러 대접하고 있다. 두 사설시조는 소박한 전원의 삶을 노래하고 있어서 마치 평시조와 같은 분위기를 자아낸

100) 『海東歌謠 一石本』 (한국고전문학전집, 280)

101) 『朴氏本 海東歌謠』 (한국고전문학전집, 340)

다.102)

저 건너 明堂을 어더 明堂안히 집을 짓고
밭 갈고 논 갈고 五穀을 7초 시문 後에 臺 우희 별통 노코 집 우희 박
올니고 을 밋티 우물 파고 九月 秋收하여 南隣 北村 다 請하야 喜娛同樂
하고지고

每日의 이렇성 노니다가 늙을 뉘를 모로리라.103)

(【날말 풀이】 南隣 北村 : 남쪽 북쪽의 이웃 마을 / 喜娛同樂 : 함께 놀며 즐김)

죽장 망혜 단표자로 천리 강산 드러가니
그 곳지 골이 깊허 두견 접동이 나제 운다 구름은 뭉게뭉게 휘여 낙낙장
송에 들너 잇고

바람은 살살 부러 시니 암상에 곳 가지만 썩썩이느고나

그 곳지 별유천지 별건곤이니 아니 놀고. 104)

(【날말 풀이】 별유천지별건곤(別有天地別乾坤) : 인간의 세계가 아닌 별천지)

위의 두 시조도 역시 풍요로운 농촌 생활을 그리고 있다. <저 건너 明堂을 어더~>에서는 좋은 터에 집을 짓고 밭 갈고 논 갈고 오곡을 모두 심고 구월에 추수한 다음, 마을 사람과 함께 즐기는 평화로운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죽장 망혜 단표자로~>에서는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경치를 즐기는 평화로운 모습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살펴 볼 것은 중세의 관념·송축과 관련된 작품들이다. 먼저 중세적 관념 중에서도 유교적 덕목인 충·효와 관련된 작품을 살펴 보도록 하겠다.

102) 이수근, 앞의 논문, 33쪽.

103) 『樂學拾零』 (한국고전문학전집, 317)

104) 『南薰太平歌』 (한국고전문학전집, 318)

司馬遷의 鳴萬古文章 王逸少의 掃千人筆法

劉伶의 嗜酒와 杜牧之의 好色은 百年 從事하면 一身 兼備 ㅎ려니와 아마도
雙全키 어려울 슌

大舜 會參 孝와 龍逢 比干의 忠이로다. 105)

(【낱말 풀이】 鳴萬古文章 : 만고에 떨칠 만한 문자으로 명성이 남 / 掃千人筆法 : 천 사람
람을 물리칠 만한 필법)

위의 시의 주제는 忠孝이다. 다른 것은 노력만 한다면 얼마든지 한 몸에
지닐 수 있으나, 충과 효는 갖추기 어렵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것은 사대
부들이 생활화했던 덕목인 충과 효에 대한 중세적 관념을 담고 있는 내용이
라 할 수 있다. 이 외에 군왕의 덕을 송축한 작품들도 여럿 보인다. 다음 작
품을 살펴 보자.

아마도 太平홀 슌 우리 君親이 時節이야

聖主 | 有德ㅎ샤 國有風雲慶이오 雙親이 有福 ㅎ니 家無桂玉愁 | 로다

億兆 蒼生이 年豐을 興계워 白酒 黃鷄로 喜互同樂 ㅎ낫다. 106)

(【낱말 풀이】 國有風雲慶 : 나라에 복이 있어 우순풍조(雨順風調)함 / 연풍 : 풍년)

위 작품은 지금의 태평성대가 모두 임금의 덕이라고 노래하고 있다. 나라
가 크게 번성하고 좋은 경사가 많으며, 백성들의 각 집도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근심이 없는 것은 시절을 노래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평시조에서
보이던 태평성세의 근원이 君恩이라고 노래했던 感君恩歌類의 노래에서 보
이는 인식과 일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07)

105) 『珍本 靑丘永言』 (한국고전문학전집, 357)

106) 『珍本 靑丘永言』 (한국고전문학전집, 387)

107) 이은혜, 앞의 논문, 30쪽.

사설시조의 작품 중에서 사대부적 의지나 회포를 표현해 주는 작품도 있다. 다음의 작품들을 살펴 보자.

太極이肇判¹⁰⁸하야萬物이始分인제人物之生이林林總總¹⁰⁹하야
聖人이首出¹⁰⁸하샤伏羲神農과黃帝堯舜이繼天立極¹⁰⁹하야人事에가즘이
大綱에맡가더니그後에禹湯文武와周公召公과孔子ㅣ이어나샤典章
法度와禮樂文物이郁郁彬彬¹⁰⁸하미이만적이업뜨져라
이몸이일즉못난줄을못다스러¹⁰⁸하노라.

(【낱말 풀이】太極肇判 : 처음으로 하늘과 땅이 나뉘. ‘태극’은 우주 만물의 근원이라는 본체 / 林林總總 : 뺨뺨이 모여 있는 모양 / 繼天立極 : 뒤를 이어 황제의 자리에 오름)

이 시조에는 초장과 중장에서는 성현들을 칭송하고 있다. 그들의 업적이 오늘날 더욱 찬란하게 빛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신은 일찍 태어나지 못한 것을 서러워함을 중장을 통해 나타내고 있다. 이렇듯 성현들을 내세워 그들의 행적을 흠모한 것은 사대부적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겠다.

大丈夫되어나셔孔孟顏曾못하양이면
출하리다떨치고太公兵法외와니야말만흔大將印을허리아리빚기
치고金垆에놓히안즈萬馬千兵을指揮間에너허두고坐作進退함이귀
아니쾌홀소나
아마도尋章摘句¹⁰⁹하느석은선비는나는아니불우리라.

(【낱말 풀이】尋章摘句 : 옛 사람의 글귀를 여기 저기서 뽑아 시문을 짓는 일)

108) 『六堂本 靑丘永言』 (한국고전문학전집, 342)

109) 『樂學拾零』 (한국고전문학전집, 424)

이 시조의 화자는 공자나 맹자, 안희와 같은 성현이 되지 못한 것이면, 강태공의 병법을 배워서 대장군이 될 것이지 구차하게 썩은 선비가 되지는 않겠다고 말하고 있다. 이 시에서는 무장에 대한 포부가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풍류’와 ‘강호·전원’, ‘중세의 관념·송축’과 관련된 작품들을 살펴 보았다. 이를 통해 사설시조 작품들 중에도 평시조와 비슷한 주제 의식을 표출한 작품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학습자들에게 지금까지 살펴본 작품들을 교과서의 작품과 함께 제시한다면 주제의 균형성을 꾀할 수 있다.

3) 무명씨 텍스트 활용의 실제

이 장에서는 앞에서 살핀 교과서 안 무명씨 사설시조 텍스트와 교과서 밖 무명씨 사설시조 텍스트를 통해 ‘주제의 균형성’에 초점을 맞춘 학습자료를 구성하고자 한다. 이 장에서 제시할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다.

- 사설시조의 다양한 주제 의식을 수용할 수 있다.
- 평시조와는 다른 사설시조의 미의식을 알 수 있다.

첫 번째 학습 목표는 사설시조의 주제 의식이 폭넓음을 알기 위함이다. 사설시조의 주제는 기존에 학생들이 배운 주제 외에도 평시조에서 보았던 주제 의식도 여럿 있다. 다양한 주제 의식을 보여줄 수 있는 작품들을 통해 사설시조의 폭넓은 주제 의식을 보여주고자 한다.

두 번째 학습 목표는 사설시조만의 독특한 미의식을 알기 위함이다. 교과서에서는 사설시조의 독특한 미의식을 보여줄 수 있는 작품만을 선별하여 학습자들에게 전달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학습자의 창의적 비판적 사고를 촉진시키지 못한다. 사설시조에도 다양한 주제 의식이 있음을 먼저 알게 하

고, 이 중에서도 평시조와 차별화된 독특한 사설시조의 미의식을 알게 해야 한다.

이 장에서 제시한 학습 자료에 제시한 텍스트는 1장에서 살펴 본 교과서 안 사설시조 텍스트 중 두 작품을, 2장에서 살펴 본 교과서 밖 사설시조 텍스트 중 두 작품을 선별하여 제시하였다. 교과서 안 사설시조 텍스트 중에서는 가장 많은 교과서들이 실고 있는 작품을 선정하였고, 교과서 밖 사설시조 텍스트 중에서는 교과서에서 실린 주제 의식과 대비되는 작품들을 선정하였다. 또한 [학습자료 1]과 마찬가지로 학습자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현대어로 풀어서 제시하였고, 어려운 낱말은 밑에 ‘뜻풀이 도움판’을 통해서 학습자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하였다. 학습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나무도 바윗돌도 없는 산에 매에게 쫓기는 까투리 마음과 대천 바다 한 가운데 일천 석 실은 배에 노도 잃고 용충줄도 끊어지고 돛대도 꺾이고 키도 빠지고 바람 불어 물결 치고 안개 뒤섞여 잦아진 날에 갈 길은 천리 만리 남았는데 사면이 검어 어둑 천리 적막 사나운 파도 치는데 해적 만난 도사공의 안과

엇그제 임 여윈 내 마음이야 어디다 견주어 보리오.

(나)

두꺼비가 파리를 물고 두엄 위에 뛰어 올라가 앉아

건너편 산을 바라보니 흰 송골매가 떠 있기에 가슴이 섬뜩하여 펄쩍 뛰어내달다가 두엄 아래 자빠졌구나.

마침 날랜 나였기에 망정이지 하마터면 다쳐서 멍들 뻘했구나.

(다)

초당(草堂)에 오신 손님 그 무엇으로 대접할고

올벼쌀 흰 점심에다 미나리 나물에 황소주 꿀 타고 을산 전복에 내 낚은 고기 끓이거라

아이야 잔 씻어 오너라 벗님 대접 하리라.

(라)

만고에 올린 사마천의 문장, 천 사람을 휩쓴 왕희지의 글씨

유령의 술 좋아함과 두목지의 수려한 풍채는 백년을 힘쓰면 한 몸에 지니려니와

아마도 다 갖추기 어려운 것은 순 입금, 증삼의 효와 용방, 비간의 충성이로다.

◎ 뜻 풀이 도움판

용총 : 용총 줄. 뜻을 내리거나 올리려고 돛대에 매어 놓은 줄

도사공 : 사공의 우두머리 / 사마천 : 중국 한나라 때의 역사가. <사기(史記)>를 저술함

유령 : 중국 진 나라 때의 죽림칠현(竹林七賢) 중 한 사람. 술을 잘 마시던 시인으로 유명함 / 두목지 : 중국 당나라 말기의 시인

용방 : 용봉은 중국 하 나라의 폭군 곽의 신하로서, 곽에서 직간하다가 피살됨. / 비간 : 은 나라 폭군 주의 포악함을 간하다가 죽임을 당함

● 기본 학습 ●



1. (가)에서 알 수 있는 화자 상황을 써 보자.
2. (나)에서 두꺼비, 파리, 백송골이 상징하는 계층은 누구인지 써 보자.
3. (다)의 화자의 삶의 태도를 써 보자.
4. (라) 시조에서 화자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지 써 보자.

● 심 화 학 습 ●

5. 다음 빈 칸을 채워 보자.

	주제
(가)	
(나)	
(다)	
(라)	



6. (가) (나) (다) (라)의 작품 모두는 작가 미상이다. 이 중에서 사대부들의 작품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또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말해 보자.

7. 보기의 평시조의 주제는 ‘임에 대한 그리움’이다. 보기의 시와 (가)시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써 보자.

이화우(梨花雨) 훑날릴 제 울며 잡고 이별(離別)한 님,
 추풍낙엽(秋風落葉)에 저도 날 생각할가.
 천리(千里)에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하노매. -계량

이 학습자료 역시 앞에서 제시한 [학습자료 1]과 마찬가지로 기본 문제와 심화 문제로 나누어서 학습 활동을 구성해 보았다. 기본 문제에서는 주로 작품의 이해와 관련된 내용을 묻고 있으며, 심화 문제를 학습 목표와 관련된 활동으로 구성하고 있다.

기본 문제 중 1번 문제는 (가)에서 알 수 있는 화자의 상황을 묻는 문제이다. (가)의 시에서 화자는 까투리와 도사공의 절박한 상황을 빗대어 자신

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특히 종장에서 ‘임 여원~’이라는 단서가 있으므로 학습자들은 ‘사랑하는 임과 이별한 상황’이라는 것을 쉽게 찾을 수 있다. 2번 문제는 (나)의 시는 두꺼비와 파리, 백송골이 상징하는 계층이 누구인지를 찾아 보는 문제이다. (나)의 시조에서 두꺼비는 중급 관리층, 파리는 백성, 백송골은 고위 관리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3번 문제에서는 (다)의 시적 화자의 삶에 대한 태도이다. 이 시적 화자는 자연속에서 안빈낙도 하는 삶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4번 문제는 (라)의 시조에서 화자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찾는 문제인데, 이 시의 화자는 사마천의 문장도 왕희지의 문장도 유령의 술 좋아함도 두목지의 수려한 풍채도 다 노력하면 이룰 수 있으나, 충과 효는 그렇지 못하다고 말하고 있다. 즉 이 시적 화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충과 효’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심화 문제는 학습 목표와 관련된 문제이다. 먼저 5번 문제는 첫 번째 학습 목표인 ‘사설시조의 다양한 주제 의식을 수용할 수 있다.’와 관련된 문제이다. 위에서 기본 학습을 통해 각 시조들의 내용을 파악했으므로, 학습자들은 시의 주제를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사설시조의 주제가 다양함을 알 수 있고, 특히 (다)와 (라) 같은 주제는 평시조에서도 보아온 주제라는 것을 알게 된다.

6번 문제에서는 학습자들이 사설시조의 작자층을 추측해 보는 문제이다. 학습자들은 5번에서 본 주제 의식을 바탕으로 (다)와 (라)의 작품이 사대부적 정서를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된다. 즉 ‘자연속에 사는 즐거움’이나 ‘충·효’와 같은 것은 평시조 작품에서도 많이 보아온 주제 의식이므로 이 시의 작자층을 ‘사대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존에 사설시조는 ‘서민적’이라는 것에 대해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7번 문제는 ‘평시조’와의 비교를 통해 사설시조만의 미의식을 알게 하는 문제이다. 보기에서 제시한 시조는 임과 이별한 후 임을 그리워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평시조이다. 이 시조와 (가)의 시조는 주제면에서 비

슷하다. 하지만 이를 표출하는 미의식은 다르다. 학습자들은 이 문제를 통해 (가)의 시조가 훨씬 더 솔직하면서도 해학적이고, 참신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사설시조가 평시조와 차별화된 미의식을 알게 된다.

IV. 결론

7차 교육과정에 오면서 학습자들의 비판적·창의적 사고는 보다 요구되어 왔다. 이제는 문학과 피상적인 지식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들이 주체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사설시조는 여전히 학계에서 쟁점들이 많은 역동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학습자들에게 비판적인 태도를 길러 줄 수 있는 텍스트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현행 사설시조의 교육은 이러한 문제를 충족시키기도 전에, 기존에 관습화된 텍스트와 선행 연구 결과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 문제가 된다. 이것은 학습자들이 사설시조에 대해 잘못된 선입견이 고정되게 하여 비판적·창의적 사고를 저해하는 원인이 된다.

본고에서는 이 점에 주목하였다. 즉 사설시조 교육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설시조 교육의 ‘내용적 측면’을 비판적 관점으로 바라보고, ‘무엇을 가르쳐야 할 지’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따라 현행 사설시조 교육의 문제점을 밝히고, 그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자는 사설시조 교육의 문제점을 살피기 위해 11학년과 12학년의 선택 과목인 18종 『문학』 교과서를 분석하였다. 교과서는 교사와 학생을 연계해주는 중요한 매개체가 된다. 또한 교과서란 교육을 계획하는 입장에서 볼 때, 목표나 내용의 짜임새에서 그것들의 가장 구체화된 모습이기 때문에, 교과서를 분석함으로써 교육 현장에서 행해지고 있는 사설시조 교육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보았다. 교과서 분석을 통해 몇 가지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었다.

먼저 ‘텍스트 선정의 균형성’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사설시조의 작자층이 밝혀진 작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학교 교육에서는 수용하지 않고 있었다. 이것은 학습자들이 사설시조의 진면모를 살펴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제 의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시조와 구별되는 주제 의식만을 다루고 있어서 ‘균형성’의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 다른 문제로 사설시조의 개념 및 발생, 작자층, 내용에 관한 교과서의 설명이 현재 학계의 연구 동향과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사설시조 개념 및 발생에서는 여전히 사설시조를 ‘서민 정신을 대표하는 문학’으로 언급한 점이 보였고, ‘조선 후기 발생설’로 오해할 수 있는 기술들이 있어 문제가 되었다. 작자층에서는 ‘평민층’을 주작자층으로 보고 있는 오류를 발견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내용에 관해서는 사설시조의 폭넓은 주제 의식이 있음을 밝히지 않은 채, 탈중세적 주제에만 초점을 맞춰 기술하는 문제가 있었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현행 사설시조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과서 밖 다양한 텍스트를 활용하고자 하였다. 즉 교사가 ‘텍스트 선정의 균형성’을 염두해 두고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를 맞춰 줄 수 있는 다양한 텍스트를 활용하여야 된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따라 유명씨 작자층의 사설시조 텍스트를 통해서는 작자층에 대한 균형을, 무명씨 작자층의 사설시조 텍스트를 통해서는 주제에 대한 균형을 꾀하고자 하였다. 덧붙여 하나의 예시자료로써 학습 자료를 구성하여 이를 구체화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본 연구의 의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8종 『문학』 교과서를 대상으로 문제점들을 분석하여, 사설시조 교육의 내용적 측면 문제점을 밝힐 수 있었다.

둘째, 사설시조 교육의 문제점을 분석함에 있어서 현재 학계의 논의를 최대한 반영하여, 오류들을 정정하고 이를 제시하였다.

셋째, 텍스트의 균형성에 초점을 맞춰 교과서 외의 텍스트를 수용하였는데, 기존의 사설시조 텍스트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 아닌 이를 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넷째, 본 연구는 교육의 일선에 있는 교사들이 사설시조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교수 자료를 제시하는 데 활용 또는 참고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현장에서 직접 진행되는 사설시조 교육을 관찰하지 못하고, 교과서 분석을 통해서만 사설시조 교육을 진단한 것에서 한계점이 있다.

본 연구를 통해 학교에서 행해지고 있는 사설시조 교육의 오류 및 문제점들이 개선되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 문헌

1. 기본자료

- 강황구 외, 『고등학교 문학 (상 · 하)』, 상문연구사, 2003.
- 교육인적자원부, 「제7차 교육과정 2종 교과도서 집필 유의점(고등학교)」, 교육인적자원부, 2001.
- 교육인적자원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2 국어(교육부 고시 1997-15호)』, 교육인적자원부, 2001.
- 구인환 외, 『고등학교 문학 (상 · 하)』, 교학사, 2003.
- 권영민 외, 『고등학교 문학 (상 · 하)』, 지학사, 2004.
- 김대행 외, 『고등학교 문학 (상 · 하)』, 교학사, 2004.
- 김병국 외, 『고등학교 문학 (상 · 하)』, 한국교육미디어, 2005.
- 김상태 외, 『고등학교 문학 (상 · 하)』, 도서출판 태성, 2004.
- 김윤식 외, 『고등학교 문학 (상 · 하)』, 디딤돌, 2003.
- 김창원 외, 『고등학교 문학 (상 · 하)』, 민중서림, 2003.
- 박갑수 외, 『고등학교 문학 (상 · 하)』, 지학사, 2004.
- 박경신 외, 『고등학교 문학 (상 · 하)』, 금성출판사, 2003.
- 박호용 외, 『고등학교 문학 (상 · 하)』, 형설출판사, 2004.
- 오세영 외, 『고등학교 문학 (상 · 하)』, 대한교과서, 2004.
- 우한용 외, 『고등학교 문학 (상 · 하)』, 두산, 2003.
- 조남현 외, 『고등학교 문학 (상 · 하)』, 중앙교육진흥연구소, 2003.
- 최웅 외, 『고등학교 문학 (상 · 하)』, 청문각, 2004.
- 한계전 외, 『고등학교 문학 (상 · 하)』, 블랙박스, 2003.
- 한철우 외, 『고등학교 문학 (상 · 하)』, 문원각, 2003.
- 홍신선 외, 『고등학교 문학 (상 · 하)』, 천재교육, 2003.

2. 단행본

- 고정옥, 『고장시조선주』, 정음사, 1949.
- 구자균, 『한국평민문학사』, 민족문학사, 1982.
- 김대행, 『시조유형론』, 이화여대 출판부, 1986.
- 김동준, 『보정 시조문학론』, 우성문화사, 1981.
- 김사엽, 『이조시대의 가요연구』, 대양출판사, 1956.
- 김제현, 『사설시조 문학론』, 새문사, 1997.
- 김종직, 『시조개론과 작시법』, 대동문화사, 1950.
- 김홍규, 『한국고전문학전집』 2 고대민족문화연구소, 1993.
- 민족문학교육회, 『문학 교육의 방법』, 한길사, 1991.
- 서원섭, 『시조문학연구』, 형설출판사, 1977.
- 성기옥 외, 『고전시가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06.
- 이능우, 『고시가논고』, 선명문화사, 1966.
- 이능우, 『고시가논고』, 숙명여대 출판부, 1983.
- 이병기, 『국문학개론』, 일지사, 1978.
- 이상태, 『국어교육의 기본 개념』, 한신문화사, 1981.
- 이우성 외, 『19세기 조선, 생활과 사유의 변화를 엿보다』, 일조각, 1978.
- 이태극, 『시조의 사적 연구』, 이우 출판사, 1981.
- 장사훈, 『시조음악론』, 서울대 출판부, 1986.
- 조규익, 『만황청류』, 박이정, 1996.
- 조윤제, 『한국문학사』, 탐구당, 1978.
- 조동일, 『한국민요의 전통과 시가 율격』, 지식산업사, 1996.
- 진재교, 『알아주지 않은 삶』, 태학사, 2005.
- 황충기, 『장시조연구』, 국학자료원, 2000.
- 황충기, 『주해 장시조』, 국학자료원, 2000.

3. 논문

강명관, 「사설시조의 창작향유층에 대하여」, 『민족문화사연구』 제4호, 1993.

고미숙, 「사설시조의 역사적 성격과 그 계급적 기반 분석」, 『어문논집』 30, 1991.

김종열, 「사설시조의 작가 의식 연구」, 강원대 박사학위 논문, 2005.

김종환, 「사설시조 작가 신분의 사적 연구」, 『3사교 논문집』 39집, 1994.

김학성, 「조선후기 시가에 나타난 서민적 의식」, 『국문학의 탐구』, 성대대동문화연구원, 1986.

김학성, 「사설시조의 담당층 연구」, 『성균어문연구』 29집, 1993.

김학성, 「사설시조의 담당층」, 『한국 고시가의 거시적 탐구』, 집문당, 1997.

박노근, 「평시조의 형식과 율격의 지도 방안 연구」,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3.

박민아, 「사설시조 작가 의식 연구」, 서강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4.

박철순, 「시조 교육의 위상 정립과 효율적 학습 지도 방안 모색-고등학교 시조 수업 방법 개선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6.

심혜숙, 「고시조 학습 지도의 문학 교육론적 접근-고등학교 국어 I 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8.

이경희, 「ICT를 활용한 사설시조의 교수-학습 방법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2004.

이대구, 「고시조의 효율적인 지도방안 연구-국어 II ‘고전문학’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7.

이수곤, 「사설시조의 통속문학적 성격 연구」, 서강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 논문, 2005.

이우정, 「사설시조의 문학적 특성과 그 지도 방안」,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

이은혜, 「사설시조의 사대부 문학적 성격」,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4.

이재영, 「사설시조 지도 방안-고등학교 문학 교과서를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임영도, 「사설시조의 교육적 의의」,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

장응범, 「고시조의 배경사상 교육방법 연구-제6차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8.

정병욱, 「시조의 역사적 형태고」, 『현대문학』 46호, 1958.

조성원, 「사설시조의 수준별 교수-학습 모형 연구; 대화하기 기법을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조숙희, 「사설시조의 교육 방안연구-현대적수용과 창조적 변용을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6.

ABSTRACT

The problem and alternative plan of 'Saselshijo' education

Lee, Hye Min

Dept. of Korean Literature

and Language Education

Graduated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uversity

The education of 'Saseolshijo' has not reflected the mainstream of a changing academic world but only transferred a fixed knowledge.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hat teachers should be aware of the problem that 'Saseolshijo' has and solve it in teaching 'Saseolshijo' to their students.

I will describe the education phase and problem of 'Saseolshijo' in chapter II. To describe this, I chose 18 kinds of literature texts learned in the 11 and 12 grades. Since a textbook is an important means that connects a teacher and students and it is a specified shape in organizing an objective and a content, we can understand the education and context of 'Saseolshijo' that has been carried out in school by analyzing a textbook.

I will describe the present situation of a textbook record, an unit choice, a textbook aspect, the record phase of an objective-learning

activity and the realities reflected that are related to the issue of 'Saseolshijo' in chapter II. As a result of seeing realities reflected that are related to the issue of 'Saseolshijo', I realized that there are some facts that a textbook didn't receive all the issue of an academic world and it also has errors. Moreover, there is a problem in balancing the choice of works, that is, a textbook mainly consists of the works that were written by the writer whose fame had not been known and those that deal with common people's theme awareness.

I will describe the alternative of 'Saseolshijo' education in chapter III as the solution, which uses a variety of texts. The balanced formation of an author will be emphasized concerning the author of 'Saseolshijo' and the works of a gentry and the public will be presented. Besides, learning materials using it will be devised. Through this, learners can understand that there have been various authors in 'Saseolshijo' that was considered as common peoples' genre.

I analyzed unknown writers' works recorded in a textbook and some works that are not contained in a textbook regarding 'Saseolshijo' theme. Learning materials presented in this chapter are the role of connecting works recorded in a textbook and those not contained in a textbook, which is presented as an objective for learning a various theme awareness. Learners will be able to accept a variety of theme awareness of 'Saseolshijo' and the its beauty

different from 'Peongshijo.'

Through this thesis, teachers can understand the problem of 'Saseolshijo' and offer their students proper learning materials. I hope that the problem of 'Saseolshijo' education will be solved and enhanced as soon as possible.